

東大新聞

어제는 봄인가 했더니 벌써 가을인가 해마다 세월은
 났을처럼 흘러가네. 이들을
 밟고 이익을 사할해 허덕이는 사람들 제
 욕심을 채우지 못해 부질없이 백발일세.
 <나용화상어록·賢世>

발행인: 김인환
 편집인: 김인환
 발행처: 동국대학교 출판부
 서울 중구 필동 3가26 (267-8577)
 전화: 267-8577
 인: 1000부

제 1013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 3호 등록번호(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89년(단기4322년)3월8일(수요일) [1]

등록금 동결주장 이사장실 점거

지난6일 학생대표 50여명...협상결렬로 「재단활성화 추진위」구성 촉구도

지난6일 오후 9시20분경
 각단대장 및 학회장 등 46명
 은 본관 2층 이사장실을 점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오후 1시부터 있던 등록금
 동결결과의 해고당국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학생들이 등록부담을 감행한다면
 등록금은 동결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진척 재정을 편수밖에 없으므로
 신교과제에 따른 교수영입은
 중단되고 장학금 수혜자의 폭
 은 축소될 것'이라는 입장
 만을 밝혔다.
 오후 5시부터는 「학생대표자
 회의」를 각단대장 및 각기
 장 등 총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세미나실(학생회관 2층)
 에서 개최하여 이종36명이
 「등록금 동결 및 재단의 전
 입금 확보를 위한 재단활성
 화추진위 결성」을 위한 철
 농 전·반투표에 부처 이중
 20명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
 어 이날 철농에 돌입한 것
 이다.
 이어앞서 등록금 동결협상
 이 지난 6일 오후 1시
 황태환이사장, 宋在澤학부
 장, 金榮進기획조정실장, 비
 상총기획부장 김봉준(야
 강경영 4), 학자부위원장 이



승민(영문 4) 군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이사장실에서 열
 려다.
 학자부위원장 이준은 「등록
 금 동결보다 중요한 것은 재
 단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활
 추위)를 통한 재단재정의 수
 익사업체로의 구조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불기인상, 신규사업등의 이
 유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담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태환이사장은 「활추위
 구성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
 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학생입
 장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
 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협상에서는 이사장이
 「활추위」안을 오늘(8일)
 이사회에 상정키로 합의, 그
 결과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학생처장, 학생대표의 협의
 거쳐 등록금문제를 타결짓
 기로 했다.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지난
 달 23일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을 보람되고 유익하게 안
 내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얻
 기 위해 신입생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지 내용을 보면 인적
 사항 및 가정환경, 대학관, 본
 교인식도, 전공학과 선택동기
 및 전과여부, 곤란 및 적응문
 제, 가치관 및 사회의식등을 살
 펴보기 위한 것이다.
 2월 2회(오후 4시, 7시) 공
 연을 갖는다.
신입생 설문조사
 학생생활연구소

인문사회학부 창립 대학원 학생회서

대학원 학생회는 「인문사회학
 부학부 창립총회」를 이날 5
 일 대학원학생회실에서 갖
 는다.
 「동국 학풍의 계보와 학
 풍 혁신운동」 및 「한국학문
 토와 학술훈의 과제」에 관
 한 연구자임을 하게 되는 이
 번 연구회 창립은 4월19일
 (미정)을 전후하여 연구 심
 포지엄을 개최해 지배이데올로
 기에 의한 인문사회학부학
 부의 재건요인을 사적 고찰, 재
 조명한다.
 지난달 28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수강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이
 번 수강신청은 18학점을 기
 준으로 최소이수학점 12학점,
 최대이수학점 21학점까지
 정정 가능하며 이 기간중에
 복학생의 수강신청도 하
 게 된다.

수강신청 정정 10일까지 교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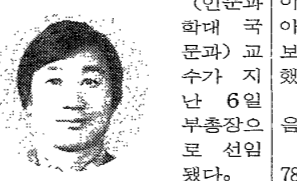
서울캠퍼스는 수강신청한
 것을 정정하는 오늘(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각 단과
 학과에서 받는다.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수강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이
 번 수강신청은 18학점을 기
 준으로 최소이수학점 12학점,
 최대이수학점 21학점까지
 정정 가능하며 이 기간중에
 복학생의 수강신청도 하
 게 된다.

영역원고용 시급 교내 쓰레기 늘려

서울캠퍼스 청소부 담당하
 는 영역대행업체 일경영역이
 지난달 28일을 기해 계약기
 간 만료되고 89학년도 새
 용역회사와 계약이 체결되
 지않아 쓰레기가 늘었다.
 이는 지난학기 총학생회
 제시한 연 14만~18만원 수
 준의 용역원 임금을 인상시
 켜줄 것과 이를 시행할 학
 교측의 재정압박으로 의견이
 상충, 새로운 용역회사를 구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측
 은 일일임금 형태의 용역원
 고용을 제시하고 있어 학생
 회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
 해 교내쓰레기 지어지고 있
 다.

경주 부총장에 金炯秀교수

경주 교수회서 직선선출...학생·직원 반발



金炯秀(인문과) 교수가
 부총장 후보로 직선 선출
 이 아닌 교수회에서 단독으로 후
 보를 선출하여 총장이 임명
 됐다.
 신임 부총장의 약력은 다
 음과 같다.
 ▲58년 본교 국문과 ▲
 78년 본교 대학원수료 ▲81
 년 박사학위취득 ▲81년 3월
 경주캠퍼스 부임 ▲82년 학
 생부총장역임 ▲85년 문리과
 학장 ▲87년 인문대학장.
 한편, 지난 3일 열린 입학
 식대 학생 50여명은 완전한(학
 생·직원참여) 부총장 직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직
 원노조에서도 교수만의 일방
 적 부총장후보선출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신임
 부총장은 지난해 학자부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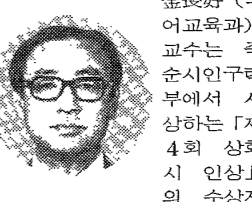
의사환인 「학생과 교수·직원
 이 부총장 후보를 직선」이
 아닌 교수회에서 단독으로 후
 보를 선출하여 총장이 임명
 됐다.
 신임 부총장의 약력은 다
 음과 같다.
 ▲58년 본교 국문과 ▲
 78년 본교 대학원수료 ▲81
 년 박사학위취득 ▲81년 3월
 경주캠퍼스 부임 ▲82년 학
 생부총장역임 ▲85년 문리과
 학장 ▲87년 인문대학장.
 한편, 지난 3일 열린 입학
 식대 학생 50여명은 완전한(학
 생·직원참여) 부총장 직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직
 원노조에서도 교수만의 일방
 적 부총장후보선출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양동원(인) 강석현(89)김
 유신(인)박원배(인)이규하(인)
 정교과(인) 최길호(인) 고기
 원(4년) 김기태(인) 김성곤
 (인) 이근호(인) 이용환(인)
 한도연(인) 군등이다.

孫昌求 교수 한국조경학회장에

경주캠퍼스 孫昌求(조경학
 과)교수가 지난해 2월13일
 한국조경학회장으로 선임돼 지
 난달 13일 서울시립대학에서
 개최된 「한국조경학회 89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 발표
 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金長好교수 상화시인상 수상



金長好(국
 어교육과)
 교수는 죽
 순시인구락
 부에서 시
 상하는 「제
 4회 상화
 시인상」
 의 수상자
 로 선정,
 오는 11일대구 뉴얼호텔에서
 수상한다.
 또한 김교수는 한국시인협
 회(회장 김중집)에서 주관
 하는 「제21회한국시인협회상」
 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시
 상식은 오는 18일오후 3시 프
 테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에서였다.

本 社 辭 令
 記者 趙容慶(사회대 행정 2)
 依願退職
 <3월 8일자>

부총장 일방선출우려 "대학자율화와 민주화"저해

경주직원노조

경주캠퍼스 직원노조(위원장-정성호)는 지난달 28일
 「교수만의 일방적 부총장후
 보선출」에 우려를 표하는 성
 명서를 발표했다.
 직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교수, 직원 모두 경주캠퍼
 스 구성원으로서 학교의 발
 전이란 명제 아래 「교수와 교
 원」, 「직원의 행정권」의 상
 호간 원활한 공존체제를 요
 청한다. 그러나 지난 2월24
 ·25일 일방적인 부총장후보
 선출은 학원 구성원인 직원과
 학생을 모두 배
 려고 있다.

경주직원노조

행위이다」라고 밝히면서 「대
 학의 자율권 확보와 운영의
 민주화를 저해함과 동시에 시
 대의 흐름 및 역사발전의 역
 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교수는 한국시인협
 회(회장 김중집)에서 주관
 하는 「제21회한국시인협회상」
 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시
 상식은 오는 18일오후 3시 프
 테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에서였다.

보수

보수가 徵心을 억제하려는
 가르침인 것을 否定한다면
 그 사람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불교가 人間의
 과 귀, 입과 코 기타 감각
 기관을 閉塞하려는 가르
 침이 아니다.

「識」의 橫暴
 힘으로 알아도 모른 꼴이다.
 「識」이 對立강동의 意
 識이 된것은 그 底蘊에 我
 執이 있기 때문이다. 識의
 眞實이 있는 眞實한 關係, 相
 扶相助의 關係, 相即相入의
 關係를 유지받지 않는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인간은 是非分別하여, 따
 지고 대립하고 어그러지나
 는 중요한 구성部分이다.
 自己主張을 관철시키기가
 李箕永

수습기자 모집

大學理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本報에서
 는 어둠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②모집자격: 1學年 男女 在學生
 ③모집분야: 일반 및 사정기자
 ④제출서류: 本報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침서는 본사 총무부에
 서부부)
 ⑤원서접수: 서울 4월 6일 오후 4시까지
 경주 3월 30일 오후 4시까지
 ⑥시열일지: 서울 4월 6일 오후 5시
 경주, 3월 30일 오후 5시
 ⑦시열과목: 1차 필기-국어·상식·작문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열장소: 추후 공고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
 금을 지급합니다.
 1989년 3월 일
 東大新聞社

신입생 입학식 만해광장서 盛了

경주는 지난 3일
 서울캠퍼스 89학년도 신입
 생 입학식이 지난 2일 오후
 11시 李智冠총장, 黃輪經이
 사장, 黃壽永前총장을 비롯,
 신입생, 학부모 4천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만해광장에서 거
 렸다. 이날 행사는 삼익의
 레포 시좌에 신입생 2천1
 백93명에 대한 李總장의 입
 학허가선언, 이해림(국어교육
 과) 양의 입학선사, 李總장
 인사, 黃이사장 인사, 총동
 장회장 인사(유주영·부회장
 장희준) 및 장학증서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李總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부처님의 지와 확고한 신
 념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회
 의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주캠퍼스 신입생입학
 식은 지난 3일 오전11시 신

생 1천6백30여명을 비롯, 각
 계인사 학부모들이 참석하
 는데 문무관에서 있었다.
 이날 입학식은 입학허가선
 언, 홍광석(한외과) 군의입
 학선사, 총장선사, 이사장선사
 총학생회장 김동선(중문 4)
 군의 신입생 환영사등의 순
 으로 식이 진행되었다.
 한편, 식이 진행되는 동안
 해폭발의 참상이 담긴 사진
 을 문무관앞에서 전시했으며
 학생 50여명이 「교수, 학생,
 직원참여의 부총장직선」과 「등
 록금동결」을 요구하며 시위
 를 벌이기도 했다.

최재성·이승민군 징계해제
 한 이행에 대한 합의문」에
 조인된 사항(이하 2명)은
 정상참작하여 처리」에 따라
 지난22일 학처장 회의에서 거
 처 시정된 것이다.
 한편, 무기징형을 받았던 노
 승호(국문88) 학대원(철학
 4) 박금직(국문 4) 정우식(철
 학 2)군등 4명은 지난 해
 12월 9일에 있었던 「8개학
 과의 조속한 이행에대한 합
 의문」 조인 즉시 징계해제
 됐다.



現代의 미래는人材가 만듭니다. ①-신입사원 연수편

“규모도 크지만 인간적이고 세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기업인것을
 알았습니다”

3주동안 그들의 신입사원연수교육을 마친 이영도씨는
 희망했던대로 현대전자로 발령을 받은 후 사내 OJT
 교육을 받고 해외영업부에 배치된 지 일주일 -
 그는 선배사원들의 자상한 보살핌에도 아직은 메사가
 조심스럽고 책상앞에 놓인 P/C 모니터와 키보드도,
 프린터가 낯선것만 느껴지지만 그를 신입사원교육을
 통해 피상적으로 알았던 현대의 실체를 깊이있게
 깨달았다.

3학년을 마치고 근무부를 했기때문에 4학년으로
 복학하고선 사회진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이영도씨는 「국내 제일의 기업인 현대에 입사해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며 특히 그룹인수를 통해 세계적일류를 지향하는 현대의 잠재력과 인간적인 경영,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한다.



본인 전자산업에 진출 본도체, PC, 통신산업
 기기 등의 수출에 주력,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등 지금까지 이룬 현대의
 성과는 실로 놀랄만 했다.
 특히 이러한 현대의 저력은 바로 현대인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 즉 「사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고 인간중심, 인재양성의 기업
 풍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낀 것이다.

「커다란 선박의 뉴욕 제기하기 위해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근로자의 손에서, 마블리 현대중합
 연구소에서 미래형 자동차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컴퓨터 키보드를 누르는 연구원의 손에서 현대의 자랑스러운 오늘과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
 이영도씨는 앞으로도 일년동안 신입사원으로서 필히 이수해야 할 교육, 즉 전산, 국내외영업, 인사,
 노무, 재무, 제품개발, 품질관리, 외국어 교육에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현대맨으로서의 자기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말로만 들던 초대형 조선소의 세계적 규모의 자동화, 전자공정을 비롯, 증진기, 열무미분, 목재,
 수리조선소 등을 견학한 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해외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는 현대가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었다.

해외건설에 국내최초로 참여, 「중동남」의
 신호를 창조했고 초대형 조선소건설로 우리나라
 세계 1위의 조선국으로 부상하는 기틀을 마련
 했으며 「포니」에 이어 「엑셀」 「쏘나타」 등 한국
 고유모델 승용차를 미국, 캐나다 등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 현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 곳곳에 크게 고양시켰으며 최첨단 산업

현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찬 이영도씨의 표정은 표정에서
 21세기를 향한 현대와 한국의 힘찬 비전을 내다볼 수 있었다.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現代

現代電子 해외영업부에 근무중인 李永道 사원

社說

신문제작은 기자, 평가는 독자가 자유언론의 명제를 확인한다

언론에 있어 편집자로서의 법위와 한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이와같은 물음에 대한 실행이 본지 1012호(3월 1일) 신문제작을 둘러싸고 제기된다. 신문제작의 전반기로 쓰기로의 전환과 이에따른 제호서체변경과 관련된 학회고(행정당국)과의 갈등이 그것이다.

본사는 이번 발행지연과 관련한 문제점을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신문제작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기자들의 책무라는 것이다. 행정체계나 조직구성상 출장이 발생하여 지어 그 역할이 신문의 예결산, 증편, 특별사설, 인사권을 상당한 포괄적 권한이 주어져 있다. 하지만 그 권한이 신문지연과 관련한 신문제작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편집자로서의 책무에 대한 집합과 판단된다. 신문은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이, 그 존재목적-본지로서는 건학이념구현, 충실한 언론본질, 민족민주주의 내외 문화창달의 사명에 걸맞은 역할을 하려 하는 것이다.

둘째, 전반기로 쓰기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 발생 과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처장회의를 거쳐 총장이 「구서체를 쓰라」는 확정적인 지시를 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는 신문사를 화교의 다른 일반행정 부서와 같이 취급한 것이아 불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 및 언

론관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판단된다.

셋째, 전반기로 쓰기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 발생 과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처장회의를 거쳐 총장이 「구서체를 쓰라」는 확정적인 지시를 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는 신문사를 화교의 다른 일반행정 부서와 같이 취급한 것이아 불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 및 언

론관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판단된다.

등록금동결과 재정난 극복하자 「재단활성화추진위」 구성으로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등록금동결이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등록금동결을 주장해온 화성측과 최소한도 분가인상이라는 교직원 임금인상 촉구를 인신상야 한다는 화교당국의 골질진 줄다리기로 등록금동결을 새하기가 시작되던 1주일 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6일이 되는 화성측과 화교당국의 등록금 동결에서 화교측이 등록금을 일단 동결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신교과목의 신설에 따른 교수 영입은 중단되고 장학금수혜의 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협상이 실질적으로 결렬된 것이다.

이에따라 학생대표들은 투표를 거쳐 「등록금동결 및 재단의 전입금확보를 위한 재단활성화추진위원회」를 위한 이사회를 열어 결정을 내리고 있다.

재단측은 「재단 활·추·위」 구성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오늘(8일)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다. 이 결과에 따라 등록금 동결의 항의가 결집된 학생들의 주먹을 쥔다.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각부서의 예산 확정과 집행이 미뤄지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등록금동결이 조속히

회과 각종 보도에 의하면 토지와 관련된 뉴스가 가장 많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위헌여부를 지방법원의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토지공개념의 확대 실시를 전제로 정부가 제출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무관심과 부정적 반응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 희박하다는 뉴스들이



李康赫 <외국어대교수·헌법학>

바로 그것이다.

토지는 불이나 공기같은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생활필수품이다. 생산요소적인 성격과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

한 까닭에 가용면적으로 계산하여 인구밀도에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70년대 이래 토지소유의 독과점, 전정부의 지가상승, 북부대도시와 대도시부근의 도시의 상시 증가로 토지공개념이라는 임시적, 대증요법적 事後藥方의 방책으로 대처하였다.

그러한 토지의 地價규제, 토지

地價, 물가상승률 훨씬 웃돌아

의 거래규제, 과세에 의한 규제 등의 투기억제대책으로서의 심각한 토지문제를 해결할에 있어 거의 실효성이 없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토면적은 일본의 3천966평방m에 훨씬 못 미치는 2천3백86평방m에 불과하다. 건설부가 국내토지의 소유 실태를 조사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중 상위 5%가전체 사유지의 65.2%를, 상위 10%가 76.9%를, 상위 25%가 90.7%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이들중 50만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6백82명이며, 이들가운데 5백만평 내지 1천만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이나 된다.

한편 용도별로 보면 상위 5%가 전국 일야의 84.1%, 대지의 59.7%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田(29.5%)이나 畓(31.9%) 보다 일야나 대지의

정부의 실효성없는 투기억제정책 문제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근절돼야

소유가 편제되어 있으며 이른바 투기억제나 대지를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동안 지가는 도매물가의 상승률을 훨씬 앞질러 두배이상 올랐다는 것이 건설부의 분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전 국토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는 국민 1인당 14평에 불과한데(일본의 27평, 대만의 17평) 대도시와 대도시부근의 도시는 상위 5%가 70% 이상을 보유(부산의 72.3%, 성남의 71.9%)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

을 현행의 토지제도나 토지정책의 산물이다. 누구든지 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토지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투기억제대책으로서의 오늘의 토지정책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입증되었다. 오늘날의 문제는 토지소유의 편중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국토의 효

용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것은 바로 한정된 토지를 소수 사람들의 소유로 내지 재산의 증식수단으로 이 이상 발전할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급속한 공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토지정책의 일대개혁으로 이른바 「토지혁명」이라 말할 수 있다.

토지의 효율적이용의 확보, 토지의 편중현상과 투기억제 등의 정책적 과제는 국민 모두가 환영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立憲主義의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규제도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실행하여야 한다.

우리의 헌법정서는 건국헌법때부터 복지가권을 지향하여 재산권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자유적(私的) 기능과 사회적(공공적) 기능을 규정하고, 개인의 기본권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을 상대적 기본권으로 보장하였으며, 특히 제86조에서 농지개혁의 근거와 소유상한을 명시한 이래 제5차개헌때까지 유지되어왔다.

그리고 제5차 개헌에서는 소작금지의 규정과 농지, 산지이용을 위한 제한과 의무의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제9차 개헌에 의한 헌법개정안은 더욱 복지국가의 실현을 강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재산권보장에 관한 기본조항인 제23조 3항(補償)의 개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개정, 제120조 2항을 유지하면서 제122조의 대폭적 개정, 특히 제35조 3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원리가 우리헌법의 기본원리이며,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이라 할지라도 공공복리(제37조 2항)를 우선시켜 그것을 제한할수있다고 본다. 바로 재산권보장을 규정하는 헌법 제23조도 재산권의 「사회적기능」(동조 1항 후단, 2항과 3항)에 역점을 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수없다. 헌법개정안은 과거와달리 국민의 토지권의 대변권을 가져와야함을 요구하고 그러한 이념을 담고있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의 확대실시는 위헌의 요소가 없다고 말할수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토지공개념의 확대실시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다. 국소수의 사람이 토지소유하고 있는 실례, 지가상승과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위한 소수의 방종·부도덕을 보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국민총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때문이다. 하부속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구체적인 마련이 필요하다.

토지공개념의 확대를 전제로 제출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보도가 있다. 다수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급배지」의 구태에 놀란 셈이다.

행대대, B52전략 폭격부대, 제25보병사단들이 있는데 특히 B52보병사단은 N. B. C (핵, 생물, 화학전)을 훈련하는 대표적 핵부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 훈련에 일본 군국주의가 참여한다는 것이다. 주일미군과 미사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며, 82년부터 일본 공군 자위대가 측면에서 지원할 형태로 부위 미군의 70%가 주일 병행훈련을 할 수 있다.

셋째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킨다. 틱스피리트가 실시될 때 북한전역은 쫓겨나서 체포되고 돌입하고 즉각 대응 체제로 전환된다.

이러한 식으로 진행되는 틱스피리트가 방어적 훈련이라는 논리는 기증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3.8선의 제국주의적 야심이 불어나는 것임을 명확히 알수있다. 이에 훈련정면은 민족통일의 관점에서 틱스피리트훈련의 부당성을 인식할 것과 더이상 미제와 결탁할수없는 민족자위대에 입각하여 스스로 물러서야 한다.

김성철 <불교대 인철학>

이번 1013호 東國漫評은 필자 사정에 의해 생략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틱스피리트훈련 미국의 "동시다발 보복전략"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생각하는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절실하게 느껴진다. 거리 곳곳에 나타나는 「민중화도 통일」이라는 팸플릿과 정부여당의 이름으로 걸려있는

라는 괴물은 무엇인가, 과연 북한측 주장대로 핵전쟁을 가산한 공격훈련인가 아니면 순수한 방어용 훈련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장벽일 수는 없을지언정, 이에 우리는 남북대화의 장애물로서 틱스피리트를 인식하고 그것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틱스피리트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다.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의 대소 군사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을 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자.

미국의 영향력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정황에서 압도적으로 발휘되고있었다. 그러나 75년 월남에서의 패배, 79년 이란 혁명의 성공, 쿠바 니카라과혁명의 성공으로 그들의 영향력은 날로 줄어들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극동 특히 한 반도를 사회적 이해 지역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하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변경한다. 사회적 이해 지역이란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는 한반도의 지위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의 80년대 이후 군사전략의 기초가 「동시다발 보복전략」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의 「스형전략」-유리이 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유입이나 증중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대해 「역스형 전략」이라 불리는 이러한 「동시다발 보복전략」은 특정지역(특히 중동)의 분쟁을 전세계적 규모

로 확대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만약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한반도 남단의 핵무기로 소련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핵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젠가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서의 틱스피리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글을 시작하며

지난 2월15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 사령관 그로모프 중장이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인 「아부다리아」강의 우정의 다리를 건너 소련으로 들어감으로써 9년 간에 걸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에의 군사개입이 완전히 종식되어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80년대 국제정치에 있어서 신냉전 기류의 요소중 하나가 소멸되었다는 상징적 의미와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 소련 외교노선의 변화상을 반영한다. 이 중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85년 3월에 취임한 이후

박 병 수

<아리리 연구원>

소련 외교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고르바초프는 이전의 신냉전 기류를 타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긴장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중국과의 관계개선, 중·소 국경의 안정, 유류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관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고 있는 냉전적 긴장완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 완료는 일국의 이익 중심이 아닌 세계의 긴장완화라는 소련의 세계전략 속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II. 소련의 대외정책

소련 대외정책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취임한 이후 소련은 이전의 미국관계 중시외교에서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과도 관계를 진전시켜나갔다. 특히 소련은 일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전략수위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붕괴를 우려하는 것과 일본을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시키려는 구상이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제3세계에 대한 인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 소련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대항하는 적극적 평화공세로써 세계적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련이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다음과 같은 국제적 배경이 있다.

첫째, 신냉전 상태의 지속화에 따라 서유럽을 비롯한 제3세계의 세계적인 반전·반핵운동이 고양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련이 최근의 국제정세를 분석함에 있어 정치·경제적 불균등 발전과 자본주의의 전방위 위기의 진화라는 인과·공유관계를 인정하여, 공존·공영이 아닌 대립·대결의 세계대전에서 열정적 피해를 입은 소련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 간의 전쟁을 피하려 하고 있다.

셋째, 소련은 미국의 군사복합체 경제에 따른 군비확장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반핵운동이 전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

제국주의 세계전략 따라 표류하는 제3세계

아프가니스탄 내전과 소련군 철수

감과 과도한 군사비 유출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곤란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소련은 이러한 배경에서 85년 소련외상 그로미코와 미국 국무장관 술츠의 제네바 회의를 통하여 전략핵, 중거리 핵전력 및 우주 무기 등에 대한 포괄적인 삭감과 제한에 합의하였다.

또한 소련은 85년 86년 11월 무차별에 걸친 미·소정 사회담에서 긴장완화 정책을 주장하였고 87년 12월에 중거리 핵전력(INF) 폐기협정을 조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소련은 사회주의권—특히 중국과의 외교를 통한 관계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즉, 소련은 중국이 제기하는 중·소 관계개선의 「3대 장애요인」인 중·소 국경 주둔 군대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군 파병, 베트남의 캄푸차아 개입 등의 마찰요인을 제거해 나갈으로써 정치적 차원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왔다.

소련 대외정책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취임한 이후 소련은 이전의 미국관계 중시외교에서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과도 관계를 진전시켜나갔다. 특히 소련은 일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전략수위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붕괴를 우려하는 것과 일본을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시키려는 구상이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제3세계에 대한 인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 소련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대항하는 적극적 평화공세로써 세계적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련이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다음과 같은 국제적 배경이 있다.

첫째, 신냉전 상태의 지속화에 따라 서유럽을 비롯한 제3세계의 세계적인 반전·반핵운동이 고양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련이 최근의 국제정세를 분석함에 있어 정치·경제적 불균등 발전과 자본주의의 전방위 위기의 진화라는 인과·공유관계를 인정하여, 공존·공영이 아닌 대립·대결의 세계대전에서 열정적 피해를 입은 소련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 간의 전쟁을 피하려 하고 있다.

셋째, 소련은 미국의 군사복합체 경제에 따른 군비확장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반핵운동이 전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

가 고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제3세계 그자체를 위협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제3세계의 세계적 위상이 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소련은 제3세계에 대한 정책을 다

이며 외교정책의 혁명적 재편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소련의 외교정책의 변화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군 철수는 소련의 제3세계 정책변화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다음장에서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소련의 변화된 대외정책인 긴장완화정책을 보기도 한다.

아프가니스탄 혁명 전에 70% 이상의 토지를 점유했던 대지주 계층에 의 해 토지가 몰수당한 지주들과 아프간 혁명정권과 대립하고 있던 회교도들은 이들을 지원하는 미국·파키스탄·중국 등과 연합하여 반혁명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주의자 아민이 타지키 정권을 축출(78년 9월)하고 강경한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지 파병과 관련한 일련의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태도는 정보뿐만 아니라 계급,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게 되는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가니스탄 혁명후 수립된 정부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의 남부국경에 접한 반소기지가 되는 것을 막아안다는 점이다.

셋째,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이 78년에 조인한 협정에 의거해 아프가니스탄 카불정권이 요청함에 따라 파병을 단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도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아름답지 않은 상처」라고 표현하듯이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즉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아프가니스탄의 지형적 특성과 미국을 비롯한 외세가 반군에 무기·자원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후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주둔비 1만 40억달러 정도, 소련군 1만 5천여명 사관과 5만명 정도의 부상, 국제여론의 악화, 파병 병사들의 사회적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노출과 고르바초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긴장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내

전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미국은 79년 10월 이란의 회교혁명으로 이란기지를 잃어버리자 그 기지를 대신한 군사기지로 아프가니스탄을 선정하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 철수를 주장하며 파키스탄을 통해 회교정권(무자헤딘)에게 자금을 지원(81~86년까지 38억 7천만달러)하고 소련의 전무기와 헬리

소련의 대외정책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취임한 이후 소련은 이전의 미국관계 중시외교에서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과도 관계를 진전시켜나갔다. 특히 소련은 일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전략수위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붕괴를 우려하는 것과 일본을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시키려는 구상이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제3세계에 대한 인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 소련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대항하는 적극적 평화공세로써 세계적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련이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다음과 같은 국제적 배경이 있다.

첫째, 신냉전 상태의 지속화에 따라 서유럽을 비롯한 제3세계의 세계적인 반전·반핵운동이 고양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련이 최근의 국제정세를 분석함에 있어 정치·경제적 불균등 발전과 자본주의의 전방위 위기의 진화라는 인과·공유관계를 인정하여, 공존·공영이 아닌 대립·대결의 세계대전에서 열정적 피해를 입은 소련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 간의 전쟁을 피하려 하고 있다.

셋째, 소련은 미국의 군사복합체 경제에 따른 군비확장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반핵운동이 전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

소련의 대외정책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취임한 이후 소련은 이전의 미국관계 중시외교에서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과도 관계를 진전시켜나갔다. 특히 소련은 일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전략수위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붕괴를 우려하는 것과 일본을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시키려는 구상이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제3세계에 대한 인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 소련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대항하는 적극적 평화공세로써 세계적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련이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다음과 같은 국제적 배경이 있다.

첫째, 신냉전 상태의 지속화에 따라 서유럽을 비롯한 제3세계의 세계적인 반전·반핵운동이 고양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련이 최근의 국제정세를 분석함에 있어 정치·경제적 불균등 발전과 자본주의의 전방위 위기의 진화라는 인과·공유관계를 인정하여, 공존·공영이 아닌 대립·대결의 세계대전에서 열정적 피해를 입은 소련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 간의 전쟁을 피하려 하고 있다.

셋째, 소련은 미국의 군사복합체 경제에 따른 군비확장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반핵운동이 전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

소련의 대외정책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취임한 이후 소련은 이전의 미국관계 중시외교에서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과도 관계를 진전시켜나갔다. 특히 소련은 일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전략수위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붕괴를 우려하는 것과 일본을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시키려는 구상이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제3세계에 대한 인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 소련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대항하는 적극적 평화공세로써 세계적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련이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다음과 같은 국제적 배경이 있다.

첫째, 신냉전 상태의 지속화에 따라 서유럽을 비롯한 제3세계의 세계적인 반전·반핵운동이 고양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련이 최근의 국제정세를 분석함에 있어 정치·경제적 불균등 발전과 자본주의의 전방위 위기의 진화라는 인과·공유관계를 인정하여, 공존·공영이 아닌 대립·대결의 세계대전에서 열정적 피해를 입은 소련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 간의 전쟁을 피하려 하고 있다.

셋째, 소련은 미국의 군사복합체 경제에 따른 군비확장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반핵운동이 전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

아프가니스탄 혁명 전에 70% 이상의 토지를 점유했던 대지주 계층에 의 해 토지가 몰수당한 지주들과 아프간 혁명정권과 대립하고 있던 회교도들은 이들을 지원하는 미국·파키스탄·중국 등과 연합하여 반혁명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주의자 아민이 타지키 정권을 축출(78년 9월)하고 강경한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지 파병과 관련한 일련의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태도는 정보뿐만 아니라 계급,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게 되는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가니스탄 혁명후 수립된 정부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의 남부국경에 접한 반소기지가 되는 것을 막아안다는 점이다.

셋째,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이 78년에 조인한 협정에 의거해 아프가니스탄 카불정권이 요청함에 따라 파병을 단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도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아름답지 않은 상처」라고 표현하듯이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즉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아프가니스탄의 지형적 특성과 미국을 비롯한 외세가 반군에 무기·자원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후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주둔비 1만 40억달러 정도, 소련군 1만 5천여명 사관과 5만명 정도의 부상, 국제여론의 악화, 파병 병사들의 사회적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노출과 고르바초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긴장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내

전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미국은 79년 10월 이란의 회교혁명으로 이란기지를 잃어버리자 그 기지를 대신한 군사기지로 아프가니스탄을 선정하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 철수를 주장하며 파키스탄을 통해 회교정권(무자헤딘)에게 자금을 지원(81~86년까지 38억 7천만달러)하고 소련의 전무기와 헬리

소련의 대외정책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취임한 이후 소련은 이전의 미국관계 중시외교에서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과도 관계를 진전시켜나갔다. 특히 소련은 일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전략수위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붕괴를 우려하는 것과 일본을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시키려는 구상이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제3세계에 대한 인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 소련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대항하는 적극적 평화공세로써 세계적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련이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다음과 같은 국제적 배경이 있다.

첫째, 신냉전 상태의 지속화에 따라 서유럽을 비롯한 제3세계의 세계적인 반전·반핵운동이 고양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련이 최근의 국제정세를 분석함에 있어 정치·경제적 불균등 발전과 자본주의의 전방위 위기의 진화라는 인과·공유관계를 인정하여, 공존·공영이 아닌 대립·대결의 세계대전에서 열정적 피해를 입은 소련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 간의 전쟁을 피하려 하고 있다.

셋째, 소련은 미국의 군사복합체 경제에 따른 군비확장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반핵운동이 전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

정권의 존립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스탈린」 미사일을 비롯한 120mm박격포와 로켓트 등 무기를 계속 제공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이 무기 및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제3세계 정책의 실현 형태라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70년대 이후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으로 인해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미국의 운동은 제3세계에서 진행되는 민족해방운동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제3세계의 분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직접적인 군사개입에 대한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정치적·사회적·심리적 선동 등에 의해 이끄는 전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데 이것이 가장도 전쟁의 본질인 것이다.

미국의 이와같은 제3세계 정책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정국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해결에 기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아민을 축출하고 집권했던 카르말이 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혁명정권의 존립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스탈린」 미사일을 비롯한 120mm박격포와 로켓트 등 무기를 계속 제공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이 무기 및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제3세계 정책의 실현 형태라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70년대 이후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으로 인해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미국의 운동은 제3세계에서 진행되는 민족해방운동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제3세계의 분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직접적인 군사개입에 대한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정치적·사회적·심리적 선동 등에 의해 이끄는 전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데 이것이 가장도 전쟁의 본질인 것이다.

미국의 이와같은 제3세계 정책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정국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해결에 기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아민을 축출하고 집권했던 카르말이 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혁명정권의 존립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스탈린」 미사일을 비롯한 120mm박격포와 로켓트 등 무기를 계속 제공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이 무기 및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제3세계 정책의 실현 형태라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70년대 이후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으로 인해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미국의 운동은 제3세계에서 진행되는 민족해방운동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제3세계의 분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직접적인 군사개입에 대한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정치적·사회적·심리적 선동 등에 의해 이끄는 전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데 이것이 가장도 전쟁의 본질인 것이다.

미국의 이와같은 제3세계 정책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정국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해결에 기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아민을 축출하고 집권했던 카르말이 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혁명정권의 존립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스탈린」 미사일을 비롯한 120mm박격포와 로켓트 등 무기를 계속 제공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이 무기 및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제3세계 정책의 실현 형태라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70년대 이후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으로 인해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미국의 운동은 제3세계에서 진행되는 민족해방운동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제3세계의 분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직접적인 군사개입에 대한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정치적·사회적·심리적 선동 등에 의해 이끄는 전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데 이것이 가장도 전쟁의 본질인 것이다.

미국의 이와같은 제3세계 정책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정국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해결에 기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아민을 축출하고 집권했던 카르말이 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혁명정권의 존립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스탈린」 미사일을 비롯한 120mm박격포와 로켓트 등 무기를 계속 제공하였다.

정권의 존립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스탈린」 미사일을 비롯한 120mm박격포와 로켓트 등 무기를 계속 제공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이 무기 및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제3세계 정책의 실현 형태라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70년대 이후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으로 인해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미국의 운동은 제3세계에서 진행되는 민족해방운동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제3세계의 분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직접적인 군사개입에 대한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정치적·사회적·심리적 선동 등에 의해 이끄는 전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데 이것이 가장도 전쟁의 본질인 것이다.

미국의 이와같은 제3세계 정책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정국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해결에 기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아민을 축출하고 집권했던 카르말이 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혁명정권의 존립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스탈린」 미사일을 비롯한 120mm박격포와 로켓트 등 무기를 계속 제공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이 무기 및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제3세계 정책의 실현 형태라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70년대 이후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으로 인해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미국의 운동은 제3세계에서 진행되는 민족해방운동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제3세계의 분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직접적인 군사개입에 대한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정치적·사회적·심리적 선동 등에 의해 이끄는 전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데 이것이 가장도 전쟁의 본질인 것이다.

미국의 이와같은 제3세계 정책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정국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해결에 기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아민을 축출하고 집권했던 카르말이 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혁명정권의 존립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스탈린」 미사일을 비롯한 120mm박격포와 로켓트 등 무기를 계속 제공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이 무기 및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제3세계 정책의 실현 형태라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70년대 이후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으로 인해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미국의 운동은 제3세계에서 진행되는 민족해방운동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제3세계의 분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직접적인 군사개입에 대한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정치적·사회적·심리적 선동 등에 의해 이끄는 전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데 이것이 가장도 전쟁의 본질인 것이다.

미국의 이와같은 제3세계 정책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정국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해결에 기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아민을 축출하고 집권했던 카르말이 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혁명정권의 존립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스탈린」 미사일을 비롯한 120mm박격포와 로켓트 등 무기를 계속 제공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이 무기 및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제3세계 정책의 실현 형태라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70년대 이후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으로 인해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미국의 운동은 제3세계에서 진행되는 민족해방운동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제3세계의 분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직접적인 군사개입에 대한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정치적·사회적·심리적 선동 등에 의해 이끄는 전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데 이것이 가장도 전쟁의 본질인 것이다.

미국의 이와같은 제3세계 정책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정국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해결에 기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아민을 축출하고 집권했던 카르말이 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혁명정권의 존립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스탈린」 미사일을 비롯한 120mm박격포와 로켓트 등 무기를 계속 제공하였다.



파키스탄에 있는 반군캠프에서 훈련을 끝낸 회교반군 무자헤딘들이 사물을 받고 있다

III.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전개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파수(8백80만명), 투르코(3백만명), 하자라(50만), 우즈베크(80만) 타지크(4백30만)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의 15%가 유목민으로 국경개척이 없이 지역을 이동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몇차례 주변국들과 국경분쟁

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의 국민의 대부분은 회교도이며 전통적으로 부족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다.

1978년 4월 다우드 정권을 타도한 인민민주주의 타지키 정권은 토지개혁, 수리민족·여성의 차별폐지, 교육의 활성화—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90% 이상이 문맹이었다—등의 광범한 사회개혁에 착수

을 지향하는 제3세계의 노력, 특히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 지지표현하였다. 즉, 소련은 외채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이 제국주의와 제3세계의 모순에서 파생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3세계가 외채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소련의 긴장완화 정책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하고 발전을 계속해 나갈것

을 지향하는 제3세계의 노력, 특히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 지지표현하였다. 즉, 소련은 외채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이 제국주의와 제3세계의 모순에서 파생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3

◇변혁 그주체를 찾아서—〈마지막회〉

한반도 변혁운동의 본질은 "민족해방 운동"

I. 글을 시작하며

해방이후 계속된 (신) 식민지 상황과 그를 관철시키는 국내 지배구조 속에서 억압과 수탈에 처한 민중들은 그들의 지배세력인 외래특권자본과 이들의 대리정치자인 군사독재정권과 국내대관자본에 대해 끊임없이 항거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항거는 4·19 혁명과 그를 잇따른 박정희 정권, 80년 5월항쟁과 이를 진압하고 들어선 전두환정권에 의해 좌절의 눈만을 겪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80년의 해방이후에도 그들의 지배구조에 간헐적으로 항거해온 민중들은 마침내 87년 「6월항쟁」을 기점으로 한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 대항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당당한 선배세대들은 기민적인 6·29선언과 막강한 물리적, 이데올로기 공세에 의한 부정부패를 통해 그들의 지배구조를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민중들의 강한 변혁적 요구는 이를 능히 극복하고 더욱 더 승리를 위한 진군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당한 사상적 뿌리나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지 못했던 민중의 저항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과학적 사상과 변혁이론을 갖고서 고된, 본질적인 형태가 아닌 강요한 조직적 대열로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일제시대부터 가장 큰 변혁적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온 학생세력은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과학적인 맑스-레닌의 사상과 이론을 배우고 특히 최근엔 인간 중심의 새로운 사상에 대한 이해와 그에 기초한 변혁이론을 통

II. 현시기 변혁의 성격과 그 주제

그동안 변혁주체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많은 논의와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변혁주체세력내에선 정확한 통일적 입장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반도 사회에서의 변혁주체의 성격과 변혁운동에서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더욱 그러하다.



〈전국학생연맹 주최, 전국학생총연맹 주관의 87년 3월 1일 전국학생총연맹 창립대회〉

한 마지막으로 각 변혁주체는 통시대를 통해, 한 사회의 유기적 관계속에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 주제들간의 관계성과 그들의 통일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한편 변혁주체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선 한국사회의 성격규정과 이에 기초한 변혁의 성격과 임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한반도(남한)를 식민주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식민주의성을 한반도 사회구조의 본질내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변혁운동은 미국의 식민주의성을 적목하고 민족자본주의 성격을 그 중심내용으로 하는 사회변혁운동으로서, 본질적인

역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그후 급속히 성장하는 노동운동의 실상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농민계급은 노동자계급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이루며 또한 미국의 수입개방과 식민지적 수탈을 위한 자료가 정책에 의해 이중삼중의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계급은 노동자계급과 함께 변혁운동에서 기본동력을 이루며 주력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입개방반대투쟁과 최근의 수세페지, 농산물제한반기운동에서 농민계급은 강력한 반미민족해방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식민지 재편에 의

운동에서의 역할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실천적으로 검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소자산계급과 각종 근로 「인텔리」에 대해 살펴보자. 고전적인 규정에 의하면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 존재하는 이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존재조건을 지니, 즉 끊임없는 해체, 양극화되는 과도적 집단으로서 혁명적 시기에만 반동화하기 쉬운 집단이며 따라서 이들은 무력화·고립화의 대상으로서 설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광범한 중소기업과 상인이 존재하고 있고 사부·기술인텔리나 전제노동자의 11%를 넘어서고 있는 점은 이들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한국의 소자산계급은 선진자본주의 소자산계급과는 달리 식민지적 수탈과 대관자본의 억압에 처해있기때문에 민족자본주의 지향성을 지닌 애국적 민족자본가들은 변혁운동의 동력이 된다.

이들 부정하는 견해는 한국사회의 식민주자본주의사회이고 한국변혁운동이 본질상 민족해방운동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교사, 의사, 학자 예술가들의 인텔리들이 미국과 그 대타당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현실은 그를 역시 식민지 인텔리로서 민족자본주의 지향과 민족주의적 변혁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후 변혁운동의 적목과 양을 위해 더욱 변혁에 대한 참여를 높여나갈 것이다.

III. 변혁주체의 당면 과제

89년들어 더욱 가열차게 부흥하는 변혁주체들은 현재의 당면 과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통해 그 지위와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받고있다. 변혁주체들의 의식화

와 조직적 통일을 제기해 보고자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반도 변혁운동의 본질은 민족해방운동이고 그 전략과목표는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한 근로인민대중의 민족통일선언에 의한 민족자본주의의 수립이다. 따라서 모든 투쟁은 이러한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는것으로 이뤄져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변혁주체들은 생존권 투쟁의 수준에 급급하고 있으며 정치의식도 반동적의식적 주류를 형성하고있다. 따라서 변혁주체가 한반도 변혁을 올케 수행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반미자본주의와 민족통일선언에 의거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이론적 실천적 영역까지 해결해나가고 있다. 농민계급 역시 수입개방반대투쟁을 통해 그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민족자본주의와 반미투쟁이 농민운동의 대목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륙이 노동자계급은 몇몇 미독점자본의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반미투쟁이 있더라도 지도부의 당위에 의한 선전적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변혁의 지도세력으로 나서기 위해선 반미투쟁을 대중화하여야 할

◇글심는 차례

- ① 학생운동의 평가와 향후과제
- ② 재야의 역할과 조직과제
- ③ 노동자 투쟁과 변혁운동
- ④ 농민운동의 쟁점과 당면문제
- ⑤ 여성의 실체와 운동의 과제
- ⑥ 도시민운동의 실태와 당면과제
- ⑦ 시리즈를 마무리

현재 변혁운동의 자주적 진출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수있다. 그러나 이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담보해주기위한 대중화투쟁의 양상과 조직적 대중적건설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변혁의 전략적 과제인 반미민족통일선언을 건설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과 노력이 현시기 변혁주체앞에 놓인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각부문을운동에서 주체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들의 과학적 변혁사상과 이론에 입각한 사상통일, 그를 기초로한 전위체를 지향하게 될 조직적 통합·결성이 실천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배이다.

물론 이는 전국과 대중에 대한 무한한 신뢰속에서 통일단결의 사상에 입각한 대중투쟁의 성과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모든 난관에 불구하고 민족자본주의의 승리는 낙관적이다. 변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주체적인 실천투쟁으로 민족해방을 안아오도록 해야하겠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이번 「변혁 그주체를 찾아서」 기획시리즈를 바라보며 나름대로 덧붙이고자 하는바를 정리해보았다. 주제가 워낙 방대하고 또한 연구성과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데 기문에 나온 사항들에 대한 피상적 고찰이 된 느낌이

다. 등록금 등락을 둘러싸고 학교당국, 재단과 학생들 사이의 마찰음이 크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2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등록금 자율화방안」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잠재되었던 사회의 모순이 폭발한것이라 볼수 있다. 이명 「수익자본주의의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실시된 등록금 인상조치는 대학이 안고있는 모순을 학부초 일방에게만 전가시키려는 태도로 봐야 해설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의 재정을 담당하는 요소는 등록금, 재단전입금, 정부지원금, 학교기부금 등으로 나

열어 있다. 이과정의 문제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재단의 소임이다. 강의실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발전의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재단은 필요가 없다. 남아 주었던 다 부모임을 자처할 수 없듯 재단도 마찬가지다. <정우석기자>

변혁주체들의 의식화와 조직적 통일문제 제기돼 반미민족통일 전선의 건설이 현시기 시급한 과제

해 그의 변혁역량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있다.

또한 87년 7·8월 노동운동들 통해 양·질적으로 급성장해온 노동자계급은 이제는 변혁운동의 지도세력으로 나서기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고있다.

한편 농산물 수입개방반대투쟁과 수세페지투 농산물 제한반대투쟁을 통해 농민계급은 최근의 여의도시위를 중심으로하여 마침내 전국농민운동연합이라는, 해방이후 「전농」 이래 최대의 조직적역량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월거민을 중심으로한 도시민운동과 교사, 의사, 연구원들 각 근로 「인텔리」의 조직적인 진출은 한반도의 변혁을 위한 각계각층의 진출이 현실화됐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계층들의 진출은 또한 그들간의 실천적 과제들을 제시하고있다. 현재의 사회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들 또한 변혁의내용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그속에서 각 변혁주체들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여 이들을 변혁의 내용에 맞게 단일한 전선을 형성시

그러나 지금의 운동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이론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변혁주체가

반드시 해명해야한다. 변혁주체가 있는, 있어라도 과학적분석에 입각한 명확한 지위와 역할이 해명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어떠한 변혁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그간의 변혁주체의 설정과 분석에이러한 잘못된 경향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질적으로는 운동대응의 사상수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각 정파가 그들일 때에 맞게 변혁주체를 바라본 「아전인수적」의 자의적 해석이 지적될수있다.

둘째, 변혁주체에 대한 분석은 그 사회의 구체적 실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선진적인 혁명국가의 상형이나 이론가의 설정을 그대로 한국사회에 적용하려피하는 사대주의적이거나 교조적인 입장이 존재하였다. 셋째로, 변혁주체의 현재적 상황을 직시한다는 미명하에 각 주체의 계급적 본질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거나 그들을 영속적 사상에서 바라보지 않는 단절적 고찰의 문제이다. 또

어서 민족해방운동이라 할수있고, 그 기본입장은 미국지배와 그 대리세력인 군사독재정권을 청산하고 또한 그들에 의한 분단구조를 철폐하는 민족의 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다.

이와같은 한국사회변혁의 성격과 임무 속에서 변혁주체를 설정해야 하며 한국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의한 분석과 그에 입각한 각 주체들의 역할배치와 지위 역할이 해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한국 변혁주체의 지위 역할과 현재적 실정을 살펴보자.

우선 노동자계급은 그 어느것 급격증가보다도 자주성을 높이 실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산할 수 없는 높은 창조적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해서 사회변혁운동에서 기본동력을 이루며 지도세력으로의 지위를 차지하고 영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식민지적 지배와 수탈로 인한 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는 계급이며 일정한 노동자들의 직업적 특성에서 나오는 집단생산활동에 의한 높은 조직성과 강한 단결

해 좌절된 토지개혁을 수행하고자 한다. 기민적 토지개혁후 다시 전농민의 35%가 완전소작농으로, 전농지의 45%가 소작지로 변하고 현재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점, 최근의 간척지를 중심으로 한 소작인들의 토지투쟁이 활발화 되고 있는 점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한국변혁운동에서 노동자, 농민에 못지않은 중요한 동력을 이루며 선구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주력부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후자는 청년학생들이 독자적 계급을 이루는 않으며 그들 대부분은 생산층의 출신으로 강한 「프롤」성을 지니므로 학생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소부르조아」적 발상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물론 청년학생들의 본질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지만 청년학생의 역할을 파악할때 다른나라가 아닌 현시대 무리나라의 청년학생을 사교의 중심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80년 이후 과학적 기술계급의 형성도 나타나고 있는 반미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

드디어映画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5회「칸느」映画祭「그랑프리」受賞!
● 세계카를리영화상 ● 세계비평가협회 최우수작품상

「올이런?」
대기 풀고 몇가지 의미를 지니는 타이틀을 통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주는 「올이런?」

名畫의 승부!
승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할 기록이다.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할 유산이다. 승자가 패자를 선택한 것은 패자가 승자를 선택한 기록을 잃어버려야 할 유산을 거부함에 있다.

군사독재정권은 단 7일간의 허락된 자유마저 강탈해갔다.

이제 이 영화는 잔인했던 우리 역사의 일부일 수 있다!

이제 우리 심장에 꽃이 핀다!

「올이런?」
11월 11일 1시 35분
11월 12일 4시 25분
11월 13일 8시 50분

주최: 다리오 아칸 세리프 세제크

●입장 3500
●대형상 3000
●초조 심야 고교 2500
●예매실시

●문의전화 0266-14456

SHARP
21세기 선진 한국을 이끌어갈 공학도의 파트너

샤프 공학용계산기

CE-50P
Optional Graphic Printer
Cassette Unit

EL-9000
16자리 수 표시(10+7) 14자리 수 표시(10+4) 12자리 수 표시(10+2) 10자리 수 표시(10+0)
●기능: 200개 프로그램
●가격: 72,500

EL-5030
16자리 수 표시(10+2)
●기능: 200개 프로그램
●가격: 47,000

EL-556
16자리 수 표시(10+2)
●기능: 200개 프로그램
●가격: 23,500

EL-5050
16자리 수 표시(10+2)
●기능: 200개 프로그램
●가격: 55,000

EL-5150
16자리 수 표시(10+2) 14자리 수 표시(10+4) 12자리 수 표시(10+2) 10자리 수 표시(10+0)
●기능: 200개 프로그램
●가격: 69,300

EL-512S
16자리 수 표시(10+2) 14자리 수 표시(10+4) 12자리 수 표시(10+2) 10자리 수 표시(10+0)
●기능: 200개 프로그램
●가격: 38,000

EL-5100S
16자리 수 표시(10+2) 14자리 수 표시(10+4) 12자리 수 표시(10+2) 10자리 수 표시(10+0)
●기능: 200개 프로그램
●가격: 44,000

가까운 대리점이나 계산기 취급점 (주내매점)에서 구입하십시오.

샤프전자산업(주)
서울·영등포구 영의동 14-27 대우빌딩 (여의도 맨하탄동 4차)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군축의 필연성

위구축함, 1천4백톤급 잠수함을 개조 생산할수있는 단계에 도달하여 잠적된 무기체계의 우위와 주한미군의 핵전력에 의지하던 한국군에 비해 동상전력면에서 대체적인 우위를 확보하였다.

당시 전개되기 시작한 동서태평양의 분위는 이러한 남북한 군사관계의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차차 1대1 군사관계를 고려한 본격적인 남북군

년~79년 기간중 한국은 28억 6백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함으로써 북한의 6억9천만달러수준보다 4배이상의 현대무기로 무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전개된 남북한간의 군사경쟁과 군사적 대결정국은 80년대 들어 더욱 고조되는데 이는 한국의 전후환 정국이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보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

Team Spirit훈련에서부터 이러한 전략에 입각하여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핵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전후환과 정보체제를 동원하여 개전과 동시에 적의 후방을 강타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으로서 이태마라 한국은사정거리 120km의 탱크미사일 배치다연장로켓포를 비롯한 화력의증강, 신형탱크의 배치, A-50등 공

I자로는 한국이 1980년~84년간의 license무기생산에 있어서도 346:265로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ACDA자료에서는 제3세계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무기수출규모도 5.6%로 북한의 1.8%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기체계면에서도 한국은 80년대 초반 4백대 이상의 전차제차 및 F-5의 증강, F-16 36대분의 도입 계약체결, 그리고 각종함정들의 현대화조치 등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특히 유도무기분야에서는 지난81

에 맞설 수 있는 성능의 전투기를 북한은 보유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 보다 하위계급으로 평가되는 MIG-21 1백60여기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주한 미공군의 전력을 감안하고, 장차 도입될 F-16을 고려할 때는 보다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우려는 북한이 80년대 중반 소련과의 군사협력에 강화하고 소련군함의 기함, 항공기의 한반도 영공투과, 그리고 각종함정들의 현대화조치 대공미사일 장비의 수입한데서도 엿볼수 있다.

한반도 내의 치열한 군비경쟁은 85년 이후 소련 고르바초프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세계적인 냉전시대 종결추세속에서도 여전히 지속된다. 한국군은 85년 이후 대전차 Tow미사일을 장착하여 장차하는 등 전차와 장갑차 분야에서 질적 개선을 이루고 중형 Corvette함정 상륙함등을 증

강화시키고 있으며 잠수함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강되고있다. 88년 현재 북한은 한국군에비해 수적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군은 보다 현대화된 정보시스템과 무기체계가 잘 무장되어 있어 어느 일방이 우위를 확실시하지 못하는 상대적 균형 상태에 도달하여 있다.

남북한의 군사산업은 이미 정교를 지나칠정도로 비대해져 있고 국방비는 각기 50억과 40억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은 여기에서 그칠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은 차기주력전투기로 F-16을 도입할 계획으로 대단히 우려되는 현실이다. 예상되는 미부시정권의 대소대결정책과 국제적외의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려는 소련이 한반도에 어떻게 맞설것지 여의이 없나라는 것을 주지할때 이 한반도는 더욱더 미·소 양대국이 무기판매쟁이로 군사적 시위의 장소로 전락하고, 또한 언제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파괴될지 모르는 것이다. 결국 미래 남북한의 자존과 번영은 하루속히 민족내의 평화구조를 정착하여 군비축소 그리고 현상의 전쟁구조를 철폐하는데 달려있는 것이다.

남·북 전쟁구조 철폐가 통일의 금선무

세계적 긴장완화 외면한 군비경쟁 가속화 추세 북한 수적우위, 남한 현대화로 상대적균형 이뤄

비경쟁구조로 전환하는게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국의 박정희정부는 국제적대항과 주한미군의 철수 움직임에 내재적인 독자체제를 정당화시키는데 이용하였으며 1975년부터 방위비의 증가를 통해 자체적인 군사재원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군사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북한 역시 70년대 후반 육군, 해군력등의 급속한 강화를 이루고 있으나 한국은 75년 이후 북한에 비해 보다 많은 군사비의 지출을 통해 다량의 무기를 구입하면서 특히 해군과 공군력에서 급격히 군비를 확장시켰다.

그한 예로 한국 공군은 당시 1백여대 이상의 F-5를 증강시켰으며 SIPRI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추정에 의하면 75

년에 보다 긴밀히 편입되면서 나타난다.

미국의 베이진 정부는 군비경쟁을 전세계적 규모로 팽창시키면서 소련을 경제적으로 보다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력에서 조성되는 평화분위기를 별 대책없이 바라보고 있는 부시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냉전기류를 조성시켜 세계의 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고 있다.

부시는 지난 2월24일 일본왕 히로히토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국과 한국을 순방했다. 그는 다케사다 일본수상과의 회담에서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정치·군사·경제적 역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중점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지원의 강화, 그리고 명령·통제통신·정보의 자동화를 이루고 있으며 1987년 Team Spirit훈련에서는 F-16에의한 대부문의 핵공격훈련까지 실시하였다고 보도되었다.

한국은 이상과 같은 공세적인 전략의 채택과 더불어 군수산업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증가를 통해 80년대 들어 순양함, 소함정수출, 기뢰제거함, XK-1 한국형 탱크의 생산, F-15/16기 연전조립품 북한의 군수산업의 규모와 기수를 추월하였다. SIPRI

년 약 1천 8백여기의 대전차 Tow 미사일을 들여 오는등 75년 이래 10여년간 4천여기의 미사일을 수입하고 있으며 현재 1천 5백여기 이상의 미사일을 주로 증중하고 있다. 이처럼 강화된 한국군의 전력과 세계시장변동에 따른 미국의 군사전략은 북한으로 하여금 상당한 위기의식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공군력에서의 격차는 일정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84년 현재 한국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5 2백60여대

격히 증강시켰으며 F-16을 실험 배치하는 등 전력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88년에 배치된 약 2백여대의 XK-1 전차는 영국전력문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지닌 어떠한 대전차무기로도 부술수 없는 Chobham형 특수장갑을 부착한 것으로 보여져 북한군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상과 같은 한국군의 전략강화에 대처하여 북한 역시 MiG-22기 40여대를 배치하고 전차, 장갑차등을 추가 2백여대 이상

증강시키고 있으며 잠수함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강되고있다. 88년 현재 북한은 한국군에비해 수적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군은 보다 현대화된 정보시스템과 무기체계가 잘 무장되어 있어 어느 일방이 우위를 확실시하지 못하는 상대적 균형 상태에 도달하여 있다.

남북한의 군사산업은 이미 정교를 지나칠정도로 비대해져 있고 국방비는 각기 50억과 40억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은 여기에서 그칠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은 차기주력전투기로 F-16을 도입할 계획으로 대단히 우려되는 현실이다. 예상되는 미부시정권의 대소대결정책과 국제적외의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려는 소련이 한반도에 어떻게 맞설것지 여의이 없나라는 것을 주지할때 이 한반도는 더욱더 미·소 양대국이 무기판매쟁이로 군사적 시위의 장소로 전락하고, 또한 언제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파괴될지 모르는 것이다. 결국 미래 남북한의 자존과 번영은 하루속히 민족내의 평화구조를 정착하여 군비축소 그리고 현상의 전쟁구조를 철폐하는데 달려있는 것이다.

김홍규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

기획논단

남북 분단40여년의 역사는 한 마디로 치열한 군비경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70년대 초반, 80년대 중반이후의 세계적 냉전추세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긴장완화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된 군비경쟁을 추진해온 것이 현실이다.

군비경쟁은 국제체제적인 성격, 국내체제적인 성격, 그리고 남북한 상호관계라는 틀안에서 실행되어 하지만 이틀에서는 지면상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할수는 없으며 다만 군비경쟁의 현상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남북한 군축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북한은 6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인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50년대 중반이후 남한에 배치된 것으로 보여지는 핵무기에 대한 공포감과 중소사회의 위기의식, 쿠바사태에서 드러난 소련의 핵무산에 대한 불신 및 남한내의 군사부테타에 의한 위기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보여진다. 그리고 북한이 50년대, 60년대 초반에 거둔 경제적인 성공은 이를 추진하는 물질적기초를 제공하였다.

70년대초에 이르러 북한은 각종 소화기류는 물론이고 각종 포, 장갑차, F59전차, 1천5백톤급포

미대통령 조지 부시는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로 자신의 대외정책의 기본기조를 밝히고 있다. 「레이건의 그림자」라는 그의 탈감각없는 평을 들고 있는 부시는 그의 대외정책 역시 레이건의 대외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미국 내외적으로 형성된 조건에 의해 약간의 방향수정만을 요구받고 있을 따름이다.

부시는 「침에 의한 평화」라는 레이건의 외교철학을 바탕으로 세계를 하나의 경쟁적인 무대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그는 전후 동맹체제를 계속 존속시키면서 소련세력을 봉쇄하는 중전의 기본 대외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무역수지적자로 허덕이고 있다. 카터정권시 미국의 무역적자는 2백40억달러 수준이었으나 현재

나서고 있다. NATO국가들과 제3세계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위상은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전방적 기류는 미국의 대소정책에 차질을 빚게하고 있으며, 부시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를 한기시키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조성되는 평화분위기를 별 대책없이 바라보고 있는 부시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냉전기류를 조성시켜 세계의 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고 있다.

부시는 지난 2월24일 일본왕 히로히토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국과 한국을 순방했다. 그는 다케사다 일본수상과의 회담에서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정치·군사·경제적 역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중점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평화공동체의 구체적인 표현인 「아시아태평양국제협력기구」는 유럽의 NATO와 OECD의 아시아판 혼합체로서 기존의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지배의 질적 심화와 일본역할의 증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군수수출제한, 일본은 민수수출제한, 아시아인 SDI의 일부 군수산업, 한국은 철강·자동차 등 재래형 중화학공업, 아세안은 노동집약형 경공업 및 일부 재래형 중화학공업을 주축으로 국제분업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태평양경제권의 형성 (관세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IFTA=자유무역지역) 대립점은 그 초기단계이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국의 경제개방요구는 무

담을 덜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지역에서의 대소정책과 냉전체제구축의 중요한 동반자로 나서고 있으며 한국도 그에 상응한 역할을 분담 받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골파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3각 군사동맹을 통한 안보 보장, 한국의 체제개편을 통한 안보 보장, 한국에 대한 남부미 부담 확대, 수입시장개방 확대등으로 집약된다.

특히 부시행정부는 주한미군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형식적으로 이양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미연합사령부 산하에 주한미군사령부와 한국군의 3군통합사령부를 두어 각각의 작전체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령부를 대체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최고 책임자로 주한미군사령관이므로 실제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미

국에 종속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부시행정부는 미합중국의 지휘체계에 있던 한미연합사령부를 앞으로는 미태평양사령부나 신설될 수도 있는 미동북아시아사령부의 작전체제로 이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과 미국의 대소정책과 냉전체제구축을 위해 더욱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대소전진기지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내기위해 「아시아태평양국제협력기구」의 창설과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결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냉전방을 유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미·소·중·일 3국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령부를 대체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최고 책임자로 주한미군사령관이므로 실제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미

이정수 <민청련 청년신문기자>

美 아시아 지배구조 심화로 "냉전전"

부시 행정부, 「아·태 국제협력기구」 창설계획 구체화 對蘇 견제위해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결성 서둘러

는 1천4백억 달러로 늘어났다. 재정적자는 8년전의 7백억 달러에서 현재는 1천5백20억 달러를 늘렸다. 이러한 자국내 조건은 부시행정부도 하여금 무한정 한 힘의 증강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소위 미국의 동맹국에게 군비분담을 집지우게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소련의 고르바초프서기장은 유럽에서의 INF협정체결 등을 통해 세계에 평화분위기를 조성시켜 왔다. 이에 서둘러 중심이로한 NATO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한국 등은 비핵지대화를 요구하며 세계의 평화조성에

한미평화공동체의 구체적인 표현인 「아시아태평양국제협력기구」는 유럽의 NATO와 OECD의 아시아판 혼합체로서 기존의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지배의 질적 심화와 일본역할의 증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군수수출제한, 일본은 민수수출제한, 아시아인 SDI의 일부 군수산업, 한국은 철강·자동차 등 재래형 중화학공업, 아세안은 노동집약형 경공업 및 일부 재래형 중화학공업을 주축으로 국제분업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태평양경제권의 형성 (관세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IFTA=자유무역지역) 대립점은 그 초기단계이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국의 경제개방요구는 무

담을 덜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지역에서의 대소정책과 냉전체제구축의 중요한 동반자로 나서고 있으며 한국도 그에 상응한 역할을 분담 받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골파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3각 군사동맹을 통한 안보 보장, 한국의 체제개편을 통한 안보 보장, 한국에 대한 남부미 부담 확대, 수입시장개방 확대등으로 집약된다.

특히 부시행정부는 주한미군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형식적으로 이양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미연합사령부 산하에 주한미군사령부와 한국군의 3군통합사령부를 두어 각각의 작전체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령부를 대체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최고 책임자로 주한미군사령관이므로 실제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미

한미·소·중·일 3국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령부를 대체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최고 책임자로 주한미군사령관이므로 실제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미

한미·소·중·일 3국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령부를 대체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최고 책임자로 주한미군사령관이므로 실제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미

한미·소·중·일 3국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령부를 대체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최고 책임자로 주한미군사령관이므로 실제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미

스포츠 레저의 첨단과학화를 선도하는 **반도스포츠**

人間·技術·未來 **테크니즘**

중고라켓 경품부 교환잔치

어떤 상표, 어떤 재질의 라켓도 첨단 테크만라켓으로!

첨단 신소재 사용과 과학적 공법으로 국내 최초로 품질관리 1등급을 획득하고 서울올림픽 공식라켓으로 지정된 바 있는 테크만라켓이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중고라켓 교환잔치를 실시합니다.

●어느 상표, 어떤 재질의 라켓이라도 첨단 테크만라켓과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교환점으로 중고라켓을 갖고 오시면 구입을 원하시는 테크만라켓 가격이 따라 최고 66,000원까지 할인보상해 드립니다.
●기간 : 89년 3월 1일 ~ 3월 31일 (31일간)

●교환방법 : 라켓교환입시 경품용모돈을 펼쳐 받으셔서 필요사항을 기재후 보내주세요.
●보내실곳 : 경기도 부천시 중구 도당동 187-7 반도스포츠 국내영업부 (Tel: (02)662-1581)
●기간 : 3월 31일까지
●보내신 영서를 공개추첨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1 등 (3명) : 금성 오디오
2 등 (100명) : 금성 아카사케트
3 등 (300명) : 반도 테니스가방
행운상 (1,000명) : 반도 허리가방
●발표 : 89년 4월 22일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지상

금성 오디오 환타지아 580
금성 아카사케트 반도 테크만테니스가방 반도 허리백

첨단신소재와 인체공학의 완벽한 조화-테크만 **반도 스포츠**

"노동자계급의 당파성 확립이 근본적 과제"

노동문학지 창간에 따른 평가와 전망

1987년 7, 8월의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민중구성내에서의 노동계급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비약적으로 진전되었으며, 이에 대략적으로 조율하여 문예운동내에서도 노동문학이 보다 활성화되고 그에 대한 논의도 부성해졌으며 노동자문화매체가 등장하기까지 이르렀다. 1988

있게 볼 수 있는 잡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전신인 동명의 부정기간행물은 『그런데<일화>』를 통하여 세상을 지향하며 독특한 역사를 일궈가는 다수 이웃들의 삶에 두루 관심을 갖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편집정책을 놓고 보면 『현장문학』 쪽이 보다 선명하게 정서화가 되어 있고 자신의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에 주체가 되어 그러한 억눌림과 빼앗긴 삶을 인강다운 삶으로 스스로 바꾸어 나가는 적극적이고 현상파적인 자세를 근로대중의 본래적인 태도로 정작』 시를 썼을 때부터 『현장문학』의 태도는 근로대중을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대상으로 바라본 잘못된 편향에서 벗어나 있으며 편향은 다른 두 동명의 매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다. 부정기간행물 『노동문학』은 『특별히 역사를 일궈가는 다수 이웃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라는 귀결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소리높여 주장하고 싸워서 얻기보다는 관례를 관습하는 것이 미덕일까?—근로대중을 『관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매체에 실린 글들이 나타내는 민중의 모습이 반드시 이러한 수동적인 인간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편집정책은 실린 글들의 수준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셈이다. 『평범한 노동

여야 할 것이다. 『현장문학』과 월간 『노동문학』에 공백적인 점은, 비록 다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하지만, 대중성에 대한 강조이다. 내용을 손상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라면 그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쓰는 것이 어렵고 지루하게 쓰는 것보다 배배 전배 낫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에 대한 고려—어떤 내용을?—를 생각한 채 그 전달방식의 접근이 더 유용한 문제라면 이는

노동자 계급의 삶을 제3자적 시각에서 쓴 작품은 가능한 배제하기로 했다』고 부언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적 시각』이란 것이 노동자계급의 입장이거나 농민계급의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 귀결은 옳다. 아니 오히려 옳하다. 『가능하다』 배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이 『제3자적 시각에서 쓴 작품』이란 것이 그 신원인 노동자나 농민이 아닌 사람이 노동자나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노동계급에 대한 인식의 폭이 확대되어 더불어 노동문학이 활성화되었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대상을 조개어 그 한쪽만을 위한 비변증법적 사고방식에 갇혀있을 때를 가리켜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을 고집하다가 누구도 듣기 싫어할 지 『대중추수주의』라는 말에 빠지고 말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중성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함정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올바른 실천에 결실하게 필요하지만 이

일 수 있는가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포괄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입장에 설 때, 노동계급의 세계관을 자기 것으로 할 때 그것은 가능하다. 노동자나 농민 출신으로서 노동자계급의 세계관을 자기 것으로 하는 작가들이 많이 나와서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해내는 작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다. 문예운동이 진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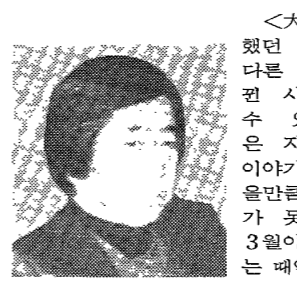
그러나 1차적인 기준은 신원이 아니라 어떤 계급의 세계관을 토대로 하고 있는가이다.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문화매체라면 그 작품성, 기교와 원칙을 바로 여기에 두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세계관은 결코 끌어안고 있는 도그마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의 노동자계급의 해방운동의 전(全)경험이 일반화되고 집약된 결과로 생성된 것이지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의의, 발전을 그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생생한 현실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계급의 세계관에 대해 더이상 복잡한 논의를 전개할 의의는 없다. 또한 세계관 운운하면서 『현장문학』이나 월간 『노동문학』이 문예운동에 기여하게 될 뜻을 무시해 버리지는 것 아니다. 다만 앞으로 이 두 매체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당면 모든 문제—단지 생산현장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그 세계관을 추구하는 것—을 함정 없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다들 말해서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을 세우는 것이 당면의 중요성을 갖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남영 <문학평론가·경원대학교>

달하나 자원의 슬기를

金泰俊 <문과대교수·한일비교문학>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 벌써 개화전부터 예기했던 대화의 분위기는 등용금 부러움 그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거운 대화의 상황은 우리 대학인문부의 문제가 아니다. 도대체 <선진국대열> 운운하고 큰소리 칠 때는, 국민학교 의무교육 하나 선진국 수준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아닌가? 그러나 대학 교육의 아픔은 바로 이 나라의 정치철학의 부재, 교육정책의 부재와 같은 맥락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학들의 현실은 그 책임소재를 따지고 있을만큼 또한 한가롭지 못하다.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 사이에 쌓인 불신 또한 하나 무너 그 골이 깊다. 이것은 대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사회의 문제이다. 어서 이 불신의 벽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불신의 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사교의 전향성이 없이는 불신의 벽을 헐 수 없고, 전향하는 현실을 헤쳐나갈 방도를 찾을 수 없다. 대화를 잘하게 하는 목표로 대학인 모두가 뜻을 합

계 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 전혀 접근할 수 없다면 그 불신의 구렁이 보듯 문제가 아니다. 옛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은 지식이 안주하는 자와 더불어 지식을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옛것에 안주하려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이 없거나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이 아닐까?

대학은 민족의 역사와 나라의 현실과 인류의 미래를 논하고 그 이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학이 아직도 옛것에 안주하려 하기 때문에, 비애해져버린 대학 스스로의 문제에서 좌초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대학의 현실을 쉽게 풀어놓을 수 있는 묘방이냐 해결사는 없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우리가 다 함께 이 현실을 반드시 넘어야 하고 반드시 넘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좁혀야 할 것인 것이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면 불을 맞고, 사담스런 수련의 신입생을 맞았다. 그들 귀여운 대학의 초년생들에게 대학이 맞닥터 붙어가는 거지와 참의는 없었다. 이것은 너무나 서글픈 일이다. 지금껏 시험지육에 허덕였던 그들에게는 한가히 이야기하는 대학의 낭만도 있어야 하고, 사제간의 따뜻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 신배들도 그들에게 처음부터는 별한 투쟁만을 가르쳐야 할 자가 있었을 것인가? 우리 모두 헌신짝새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난국을 헤쳐갈 슬기를 모으자. <달하나 천강에> 비치는 자연의 슬

4월 4주

년 1월에 부정기 간행물 『노동문학』(실천문학사)이 발간되었고 같은해 11월에는 『현장문학』(현장문화사)이 창간되었고 바로 며칠 전에는 기존의 『노동문학』이 월간지로 재창간되었다. 또한 아직 발간되지는 않았으나 『노동해방문학』(노동문학사)이 창간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문화매체들은 노동문학의 개념내용에 대한 견해가 여러가지로 상이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는 때로는 명칭 자체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편집의 원칙이나 방향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로는 일정한 대립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러한 차이는 그 자체가 바로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좋은 의도에서일지라도 결코 좋은 의도에서일지라도 오해될 수 있다. 오해될 수 있는 차이를 명백히 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지향성을 모색하는데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이 좁은 지면에서 더욱이 『노동해방문학』이 예고만 되었을 뿐 아직 창간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장문학』과 『노동문학』 두 매체를 아주 소략히 평가하는 가운데, 그간의 민중운동의 발전의 소산으로 얻어진, 현대적 문예운동의 가장 주요한 당면과제는 노동계급의 당파성을 굳건히 세우는 일이라는 인식을 되새겨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평가의 방향은 평가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매체에 대한 평가는 그 매체에 실린 글들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실상 이는 이 자리에서 수행하기에도 변찬 과제다—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편집의 원칙이나 방향성을 일차적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단서로 달아야 하겠다. 『현장문학』은 그 창간지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근로대중의 삶과 의식』을 기원으로 하고 『노동자, 동민의 주체적인 작품』을 우선으로 하며 그 내용과 형식이 대중에게 친근하고 가깝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월간 『노동문학』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누구나 쉽고 재미

억눌리고 빼앗긴 삶을 바꾸어 나가는 체험위주로 '근로대중의 삶과 의식' 기준삼아 다수 이웃들의 삶그려 노동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잡지로 정착시킬터

』를 독자로 규정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잡지를 부각시키는 월간 『노동문학』도 생산의 주체일뿐 아니라 변혁의 주체이기도 한 근로대중의 모습을 지적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평범한』이라는 형용사가 특유한 일만 하는 노동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싸움에 나서지 않지만 아직 의식각성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노동자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애매하다. 만일 전자라면 그러한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합당한 행동과 의식이 어떤 것인지지를 전달해주는 것이 편집의 원칙 속에 담겨져야 할 것이고, 후자라면 그러한 노동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의식을 보다 각성시켜서 올바른 실천으로 이끌어나가 편집의 원칙속에 담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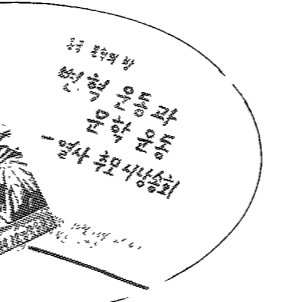
동대리 밤방 "문학도 변혁운동에 기여해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 해방전후사를 소재로 다룬 여러 문학사적들이 출간되고 민족문학작가회의 결성되는 등 우리 문단에 새로운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동대리 밤방의 문학역량과 문화운동의 전방에 대해 단편적으로나마 알아보기 위해 작년에 민족해방을 일궈가는 열린 글페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동대리 문학회를 찾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동대리 밤방의 문학역량과 문화운동의 전방에 대해 단편적으로나마 알아보기 위해 작년에 민족해방을 일궈가는 열린 글페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동대리 문학회를 찾았다. 기자가 동대리 문학회를 찾았을 때는 마침 개강후라 몇몇 인원은 동아리방을 칸막이 형을 쳐서 한쪽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화대담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분주해 보였다. 현재 약 20여명의 학생들이 학생회관 4층에 모여 동대리 문학회의 재기를 꿈꾸며 열띤 토론과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동대리 문학회는 1984년 시인 김초혜·박제천씨들을 중심으로 발족되었다. 동대리 문학회는 발족이후 주로 순수문학의 창작활동을 해왔는데 지난해에 이르러 동대리 문학회의 일면 폐쇄적이고 자



족적인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와, 안으로 내용성 있고 밖으로 문화이라는 매체를 통해 좀더 목적의식적으로 열의 합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지 회원들 간에 작품을 발표하고 상호비평하는 합평회를 갖고 있으며 리얼리즘, M·L주의 미학, 문예운동론 문학이론에 관한 세미나와 역사·철



시의내용물을 담아보기 위한 박시운동, 시낭송과 연극적으로 결합하여 공연으로써 관객들에게 새로운 느낌과 강한 전달력을 가져다준 익명 시낭송, 각 집회에서의 서너차례의 시낭송, 겨울방학에 열었던 민족문화교실, 문학강연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동대리 문학』이라는 창작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현재 동대리 문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윤성태(국문87)군은 『현장문학』의 창간호에서부터 문학의 열의와 열의 문학운동이라는 이름을 내세우

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의 동대리 문학회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동대리 문학회는 자체정비를 서두르고 아직까지 후진성을 면치 못할 하는 과단위 문예활동 역량을 한계, 반파소부등에 주동시켜 내야하며 그러자면 동대리 문학회의 정치집행이 우선 선은 성립조건에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정책제언하며 문화의 활동을 주 행시와 자체화 습과 창작활동이 결합하는 토대를 정착시키고 올해 문화의 활동속에서 제기된 문제 즉 외부행사에 경도되는 모습, 시분과—소설분과의 집중추진, 정치사상학의 부재 등을 해결해 나갈때 동대리 문학운동의 전방은 한층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동대리 문학운동전개의 일환으로 민족문학교실을 연에 회원들만 참가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탈피 각단체 파벌 문예활동수준을 추진중이다 한다. 밤방을 마치고 문을 나서면서 기자는 김남주 시인의 시귀절을 되새겼다. 『박해의/시대의/시인의 일/그것은 것들인 삶으로부터/가워늘인 악몽으로부터/잠든 마음을/옛사람의 무기/참을 잃고서 새워/저라 동풍을 불어쳐 내아가게 하는 일이 아닐까』 <췌>

동대리 밤방

「열린곳」공연 동숭아트센터에서는 오늘(8일) 오후 7시30분에 개관 축하전 「열린곳」을 공연한다. 민가에서 집을 지은 다음에 했던 고사·집들이·열린곳을 통해 새집과 함께 공연예술계 전체의 발전을 기원하는 이번공연에서는 핏줄이 김소희씨가 「살풀이」를 공연하기도 한다.

「제2회 민족극 한마당」공연 전국 민족극운동협의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5월10일까지 총16개단체가 예술극장 한바탕, 연주소극장, 그리고 각 지역의 공연장에서 동시다발

「신의딸」공연 한국개혁교회후원사업본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기독교1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교회회원및 기독교장로자를 위한 기금모금 공연을 갖는다. 공연작품은 신의딸.

「우리들의 일상」展 민족미술협회 회원인 판화가 이민철씨의 판화전 「우리들의 일상」전이 그림마당

뮤지컬 「님의 침묵」공연 마담세실극장에서는 만해 한용운선생 탄신1백주년 3·1독립선언 70주년·창립10주년 기념으로 뮤지컬 「님의 침묵」을 무기한 공연한다. 뮤지컬 「님의 침묵」은 지난 84년 초연때부터를 초연대 배역을 그대로, 작품을 더욱 정리했으며 공연시간은 오후 4시30분·7시30분 2차례이다.

「세계...」범국민공청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청년학생추진 참가자의,

원칙, 방법, 내용을 주제로 오는 11일 오전10시 전대협, 정부대교, 각종단체, 각사회단체를 참가자간 가운데 세계청년학생추진 참가에 대한 범국민공청회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갖는다.

CPA 1차시험 대비 특강 공인회계사반 지도위원회에서는 내달 16일 실시되는 CPA 1차시험대비 특강은 오는 12일까지 동국관 M(206)에서 실시한다. 특강과목및일자는 생산관리 9일까지, 재무관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수화점자 강좌 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 제17기 수화 및 점자강좌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갖는다. (회비는 1만원) 아랍어 강좌 한국이슬람교는 지난 6일부터 5월6일까지 2개월과정을 아랍어강좌를 개설한다. (자세한 문은 793-6098) 수운·순도선열 합동유령제 천도교는 오는10월 오전11

64년 김초혜·박제천중심으로 발족

합평회로 회원의 창작기량성 확보

동대리 문학회는 발족이후 주로 순수문학의 창작활동을 해왔는데 지난해에 이르러 동대리 문학회의 일면 폐쇄적이고 자

동국문학회

동국문학회는 발족이후 주로 순수문학의 창작활동을 해왔는데 지난해에 이르러 동대리 문학회의 일면 폐쇄적이고 자

64년 김초혜·박제천중심으로 발족

합평회로 회원의 창작기량성 확보

동국문학회는 발족이후 주로 순수문학의 창작활동을 해왔는데 지난해에 이르러 동대리 문학회의 일면 폐쇄적이고 자

「열린곳」공연 동숭아트센터에서는 오늘(8일) 오후 7시30분에 개관 축하전 「열린곳」을 공연한다. 민가에서 집을 지은 다음에 했던 고사·집들이·열린곳을 통해 새집과 함께 공연예술계 전체의 발전을 기원하는 이번공연에서는 핏줄이 김소희씨가 「살풀이」를 공연하기도 한다.

「제2회 민족극 한마당」공연 전국 민족극운동협의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5월10일까지 총16개단체가 예술극장 한바탕, 연주소극장, 그리고 각 지역의 공연장에서 동시다발

「신의딸」공연 한국개혁교회후원사업본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기독교1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교회회원및 기독교장로자를 위한 기금모금 공연을 갖는다. 공연작품은 신의딸.

「우리들의 일상」展 민족미술협회 회원인 판화가 이민철씨의 판화전 「우리들의 일상」전이 그림마당

뮤지컬 「님의 침묵」공연 마담세실극장에서는 만해 한용운선생 탄신1백주년 3·1독립선언 70주년·창립10주년 기념으로 뮤지컬 「님의 침묵」을 무기한 공연한다. 뮤지컬 「님의 침묵」은 지난 84년 초연때부터를 초연대 배역을 그대로, 작품을 더욱 정리했으며 공연시간은 오후 4시30분·7시30분 2차례이다.

「세계...」범국민공청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청년학생추진 참가자의,

원칙, 방법, 내용을 주제로 오는 11일 오전10시 전대협, 정부대교, 각종단체, 각사회단체를 참가자간 가운데 세계청년학생추진 참가에 대한 범국민공청회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갖는다.

CPA 1차시험 대비 특강 공인회계사반 지도위원회에서는 내달 16일 실시되는 CPA 1차시험대비 특강은 오는 12일까지 동국관 M(206)에서 실시한다. 특강과목및일자는 생산관리 9일까지, 재무관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수화점자 강좌 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 제17기 수화 및 점자강좌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갖는다. (회비는 1만원) 아랍어 강좌 한국이슬람교는 지난 6일부터 5월6일까지 2개월과정을 아랍어강좌를 개설한다. (자세한 문은 793-6098) 수운·순도선열 합동유령제 천도교는 오는10월 오전11

시의내용물을 담아보기 위한 박시운동, 시낭송과 연극적으로 결합하여 공연으로써 관객들에게 새로운 느낌과 강한 전달력을 가져다준 익명 시낭송, 각 집회에서의 서너차례의 시낭송, 겨울방학에 열었던 민족문화교실, 문학강연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동대리 문학』이라는 창작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현재 동대리 문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윤성태(국문87)군은 『현장문학』의 창간호에서부터 문학의 열의와 열의 문학운동이라는 이름을 내세우

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의 동대리 문학회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동대리 문학회는 자체정비를 서두르고 아직까지 후진성을 면치 못할 하는 과단위 문예활동 역량을 한계, 반파소부등에 주동시켜 내야하며 그러자면 동대리 문학회의 정치집행이 우선 선은 성립조건에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정책제언하며 문화의 활동을 주 행시와 자체화 습과 창작활동이 결합하는 토대를 정착시키고 올해 문화의 활동속에서 제기된 문제 즉 외부행사에 경도되는 모습, 시분과—소설분과의 집중추진, 정치사상학의 부재 등을 해결해 나갈때 동대리 문학운동의 전방은 한층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동대리 문학운동전개의 일환으로 민족문학교실을 연에 회원들만 참가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탈피 각단체 파벌 문예활동수준을 추진중이다 한다. 밤방을 마치고 문을 나서면서 기자는 김남주 시인의 시귀절을 되새겼다. 『박해의/시대의/시인의 일/그것은 것들인 삶으로부터/가워늘인 악몽으로부터/잠든 마음을/옛사람의 무기/참을 잃고서 새워/저라 동풍을 불어쳐 내아가게 하는 일이 아닐까』 <췌>

동국문학회는 발족이후 주로 순수문학의 창작활동을 해왔는데 지난해에 이르러 동대리 문학회의 일면 폐쇄적이고 자

64년 김초혜·박제천중심으로 발족

합평회로 회원의 창작기량성 확보

동대리 문학회는 발족이후 주로 순수문학의 창작활동을 해왔는데 지난해에 이르러 동대리 문학회의 일면 폐쇄적이고 자

올 총학생회장 선거 이달 28·29일

학원자주·사회민주화 추진 사명

선관위구성, 후보자등록마감 13일限 3차례 유세등 세부선거일정 마련해

「제21대 총학생회 정.부 회장선거가 오는 28, 29일 양 일간에 걸쳐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선거일정을 지난 1일 확정, 선거시행세칙을 완료해 제21대 총학생회 선거를 위한 일정을 공고했다.

학생회칙 제86조에 의거한 세칙에 따르면 등록금동결부결로 인한 학내사정을 고려해 학생회칙 제89조, 제81조 7항 등에 의거 중선위의 결정에 따라 선거제반을 조정함으로써 계속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후보자격을 7학기 등록이 확정되고 7학기 졸업이 이수한 학생으로, 투표권은 수강신청자명단으로 대체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위원장 정태준(토목4) 군을 비롯 중

20명의 중선위가 구성됐으며 중선위측은 3월선거로 지난 해부터 바뀐 학생회칙의 결정을 지적 「3월선거는 아직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신입생들에게 한해를 떠맡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11월선거가 실시돼 더욱 발전적인 총학생회장을 선출할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중선위는 오는 31일 당선확정공고발표후 즉시 자동해체되며, 중선위에서 밝힌 선거세부일정은 ▲13일=오전 5시 등록마감 ▲20일=1차유세 ▲23일=2차유세 ▲24일=선거인명부작성완료 및 연합기자회견 ▲27일=3차유세 ▲28, 29일=투표(오전 9시~오후 5시) ▲30일=당선공고 ▲31일=당선확정공고 등이다.

비상총학, 차장 중심 구성 지난22일 회장에 박영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임기가 지난 28일만료됨에 따라 지난 22일 비상총학회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비상총학생회가 구성됐다. 비상총학생회장은 사회대 학생회장 박영규(사회4) 군이 총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됐고 집행부는 20대총학의 차장단이 맡게 됐다.

집행부를 살펴보면 ▲총부=최현영(경역4) ▲사회=박금직(국문4) ▲기획=김봉준(아간경역4) ▲학술=김용환(정보관리4) ▲조상=유(화학4) ▲문화=박종현(통계4) ▲박창수(국문4) ▲홍보=김미옥(인철4) ▲연대사업부=김수연(국문4) 양 등이다.

연탄가스중독으로 손성호 학생 사망

경주캠퍼스 학생복지부위원장 손성호(국사 4)군이 지난 28일 오전 8시경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했다. 평소 원만한 성격으로 친구가 많았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손군은 지난달 26일 경

주시 황오동 318번지에 새들어 3일째 피난날 혼자 잠자리에서 사고가 발생, 오전 7시30분경 집주인인 김주보(75세) 씨가 이를 발견하여 포항 성모병원으로 옮기던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주캠퍼스에서는 지금까지 86년도에 석장동에서 이명숙(77) 양이, 지난해 3월에는 금강동에서 이숙원(당시 한의본1)과 김경준(77) 군이 연탄가스중독사고를 당했다.

외국어 특강 실시

외국어교육원은 춘계 외국어 특강으로 「아카데미 TOEFL」과 「VOCABULARY 22001」을 이달 27일부터 5월 26일까지(중간고사기간은 휴강) 등록관(L301, L501)에서 실시한다.

「아카데미 TOEFL(감사 김경태)」은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8시50분까지 등록관(L301)에서 「TIME」를, 「VOCABULARY 22001(감사 정연우)」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50분까지 등록관(L501)에서 「영어수업」을 동시에 강의한다.

점수치는 구내서결과 외국어교육원이며 지난 2일부터 선착순 2백50명씩 접수마감되는데 수강료는 각각 8천 원이다.



상아탑의 모습치곤... 청소용역 대행회사와의 계약만으로 다른 재계약을 놓고 학생회가 운영위원들의 힘과 예산을 투입한 반년 학교측은 등록금문제로 난색을 표시하자 그사이 늘어나는 것은 캠퍼스가 쓰레기장화된 모습뿐. 운영원 월급인상도 좋지 않음. 시지 고등이나 학생들의 자발적 청소 등 대안없는 원칙론만 고수하는 공동책임인듯. <글=임수현기자, 사진=유권준기자>

대총, 총학감사 마쳐 학자투 미비·부품 낭비 지적

총학생회회는 제20대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제4대 학생회대행 사무실 및 결산감사 등을 지난 2일과 2월19일, 16일 각각 실시했다.

지난 2일 실시된 총학생회 학자투사업 및 결산(공약포함) 감사에서는 사업·공약에서 학자투의 미비점을, 결산감사에서는 비품의 낭비, 순수업무 외의 지출등을 지적했고, 2학기총학예산은 8백70만9천원으로 결산 88만8천원으로 이1천9백47만2천4백6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19일 학생복지위원회감사에서는 복지시설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및 통계자료미비, 복지위원회의 체제정비등의 사항을 요구했으며, 예산면에서는 총수익금이 2백79만2천원, 고유업무무지출이 29만7천원으로 밝혀져 고유업무상의 지출부족, 수익금의 복지관련 미약함이 미비점으로 남았다.

한편 경주캠퍼스 대외위원회 산하 「결산감사특별위원회의 88학년도 제2학기 정기회결산감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감사는 2학기 각기 구별 학생자치회비 집행 및 그 결과에 대한 감사로 대외위원회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1일 각 자치기구추진장으로 공문을 보냈으나 방학과 학내사정으로 공문을 받지 못한 기구도 있고 일부 기구에서 「부총장직선」 「등록금 동결부결」 등 학내문제를 이유로 감사자료제출을 앓고있어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대외위원장 노영환(영문4) 겸은 밝혔다.

「경주 10년사」 발간 출판부 발전과정 등 수록해

경주캠퍼스 설립 1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인 「경주캠퍼스 10년사」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출판부에서 발간됐다.

1백93페이지 분량의 이책에는 학·제시결과 기본시설 부속기관, 학술연구 학생활동 등의 5개장으로 이루어진 경

주캠퍼스 10년의 발전과정과 지방캠퍼스 특색과 문제점, 경주캠퍼스시정비계획 등의 5개장으로 이루어진 경주캠퍼스의 향후발전 방향 등의 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백여권이 발간되었

도서관 장서 총 40여만권 집계 대출은 문학·사회과학·기술과학 서적 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88학년도 장서증가통계와 88학년도 제2학기 도서대출량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가정도서와 구입도서등을 포함, 총 1만 9천 9백36권이 늘어나 현재 중앙도서관의 보유장서는 등록도서 30만 1천 3백 7권, 미등록 정기간행물 10만여권 등 총 40여만권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8학년도 도서대출량은 총 17만 4천 6백 41권이며 도서관 총출입 인원은 49만 2천 4백 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증가된 장서와 대출량을 분야별로 알아보면 사회과학서적이 4천 8백 22권, 응용과학서적이 3천 6백 26권, 문학이 2천 4백 31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로 증가했는데, 대출량은 문학이 4만 3천 2백 23권, 사회과학이 3만 1천 1백 73권, 기술과학이 1만 4천 4백 2권의 순을 보였다.

각 단계를 대출량은 문과가 2만 4천 8백 52권으로 가장 많았고 공과대, 경상대, 사범대순으로 1만 권이상을 넘어섰으며 예술대가 1천 5백 68권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주캠퍼스 도서관의 88학년도 장서증가량도 지난달 20일 총집계됐다.

한해동안 구입도서는 1만 2천 9백 72권, 기증도서는 4천 5백 88권으로 87년보다 1만 7천 5백 60권이 증가했으며 분류별로는 동양사 1만 4천 2백 72권, 서양사 2천 1백 49권, 교서 1백 19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천9백여명 아르바이트 활동 학생처 지난 2학기, 야간강좌 가장 활발

서울캠퍼스 88학년도 제2학기 중 학내 각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부직활동을 한 학생수는 총 1,9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처 발표에 의하면 각 단별 부직실적을 보면 야간강좌가 541명으로 가장 많고 문과대, 공과대 순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예술대가 31명으로 가장 낮았다.

각 단별 부직실적은 ▲공과대 88명 ▲문과대 276명 ▲이과대 121명 ▲법과대 100명 ▲사회대 93명 ▲경상대 224명 ▲농과대 105명 ▲공과대 262명 ▲사범대 223명 ▲예술대 31명 ▲야간강좌 541명 등이다.

동연 운영위원회 오는 9일 열려

동아리연합회는 1학기 사업 계획보고와 서울지역동연협의회 사업보고등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오는 9일 오후 1시 동연실에서 갖는다.

동연회장단 및 8개 분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할 이 운영위원

동연회장단 및 8개 분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할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동계 방학중 동아리 사업보고, 신입생 환영회 사업보고, 동연 1학기 사업계획보고, 서울지역동연협의회 사업보고, 3월 정기대표자회의의 소결 및 정밀 안건보고등을 갖는다.

경주캠퍼스 88학년도 총 대출량은 87학년도 9만 3천 3백 38권보다 1만 2천 9백 88권이 증가한 10만 6천 2백 6권으로 집계되었는데 분류별로는 문화류가 가장 많은 3만 7천 977권이고 사회과학이 2만 6천 2백 33권, 철학 9천 2백 43권, 역사사 8천 1백 27권 순이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인문대가 4만 7백 93권, 상경대 2만 5천 9백 85권, 자연대 1만 4천 3백 62권 순이며 공과와 교직원은 1천 3백 62권과 8백 55권을 각각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주캠퍼스 도서관 개관시간이 지난달 20일부터 일 반도서관,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일반열람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50분까지로 연장됐다.

신입생 환영회 오는 9일 농대 주최

농과대학생회는 신입생 환영회를 오는 9일 오후 2시 「학자투소개」, 「노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원관 소강당에서 갖는다.

발전적 비판이 앞서야 오른서도 발전적 비판이 앞서면 안 된다.

○... 지난 1011호 본지(2월 22일자)의 金鶴鎔 신임 전 체교수회장과 인터넷 기사내용이 한간의 속여공론 거리가 되고 있다고. 내용인즉, 「총장선출방식」은 개인의 견해를, 「유자재정」은 빚투는 개설수 격의 재단상황을 불배 字句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전임회장」에 대한 표현은 학생들이 그러했다는 것인데 이는 김회장의 공인

발전적 비판이 앞서야 오른서도 발전적 비판이 앞서면 안 된다.

○... 지난 1011호 본지(2월 22일자)의 金鶴鎔 신임 전 체교수회장과 인터넷 기사내용이 한간의 속여공론 거리가 되고 있다고. 내용인즉, 「총장선출방식」은 개인의 견해를, 「유자재정」은 빚투는 개설수 격의 재단상황을 불배 字句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전임회장」에 대한 표현은 학생들이 그러했다는 것인데 이는 김회장의 공인

발전적 비판이 앞서야 오른서도 발전적 비판이 앞서면 안 된다.

○... 지난 1011호 본지(2월 22일자)의 金鶴鎔 신임 전 체교수회장과 인터넷 기사내용이 한간의 속여공론 거리가 되고 있다고. 내용인즉, 「총장선출방식」은 개인의 견해를, 「유자재정」은 빚투는 개설수 격의 재단상황을 불배 字句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전임회장」에 대한 표현은 학생들이 그러했다는 것인데 이는 김회장의 공인

발전적 비판이 앞서야 오른서도 발전적 비판이 앞서면 안 된다.

○... 지난 1011호 본지(2월 22일자)의 金鶴鎔 신임 전 체교수회장과 인터넷 기사내용이 한간의 속여공론 거리가 되고 있다고. 내용인즉, 「총장선출방식」은 개인의 견해를, 「유자재정」은 빚투는 개설수 격의 재단상황을 불배 字句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전임회장」에 대한 표현은 학생들이 그러했다는 것인데 이는 김회장의 공인

경주서 하숙생 또 연탄가스중독사... 책임은 누가지나

직업장과 자연인적 직업장의 차이가 불분명하게 나타나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듯, 아무튼 이와 같은 일도 새로 출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교수회에 대한 동지회방의 기대와 관심의 발로라고 볼때 교수회의 진로는 밝아 보이는 듯 싶

「강건너 불구경식」의 책임 전가만 되풀이해 동국의 배움터인 문방공이 일부 불상한 문방공능력자(?)들과 행정위주 사고방식에만 있어 학교주변의 하숙, 자취방의 시설은 형편없고 가격은 터무니 없이 비싸지만 신학기만되면 하

숙방구하기가 대학입시경쟁률(?)보다 치열하다고 해그 대학이 사립인 실정. 사립국의 사립대학원생과 행정인원의 학교측으로 학생 부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까가 판정합니까. 反共天下之大本(?)

○美「부시」와의 의리확인후에도 국민들과공감대를 형성치 못해 정치 못해 정치와 접에서는

○후분양 일방통행로에 올라오는 차량과 내려가는 차량의 「버티기 작전」에 학생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껴 울상. 병원에서야 하차한 차량들이 시내교통혼잡시에 쓰는

언제 맘 변할지 모르는 야3당도 문제는 문제너니와 민정당도 언제 「단공침하지대본」을 들고 나와 국민주도에 앞장서려할지 심히 걱정되네.

일방통행 강경대처

'89 JEANS COLLECTION OF SERGIO VALENTE
Tender Blue/White

89년 봄 신제품 텐더블루(TENDER BLUE) 텐더화이트(TENDER WHITE) 인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와 명품의 명품인 Sergio Valente의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자랑합니다. 이 컬렉션은 남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을 추구하며,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스타일 패션진
세리오 바렌테**

젊음, 낭만, 대화, 만남, 사랑 그리고...
대학 생활의 모든 것,
젊음의 모든 것을 새롭게—
세리오 바렌테 「텐더블루-텐더화이트」
자신있는 젊음이 여기 있다.
우리의 자신있는 패션언어—
세리오 바렌테 「텐더블루-텐더화이트」

언제나 새로운 스타일-세리오 바렌테

Sergio Valente

SAMDO FASHION GROUP (02) 588-3100-9
●소비자상담실 ●서울 588-3100 ●부산 862-6211 ●대구 422-3481

민중만화

민중문화전통·민화의 창조적 계승이 우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민화의 재민에 맛을 들여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부질없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민화는 많은 사랑을 사르잡고있다.

물론 일간지나 민화 잡지 등에서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반쪽이의 내간화라든지 한겨레신문의 「한겨레 그림판」들은 그 시사성과 아울러 문예의 본질을 명쾌히 꿰뚫어 보여 대중의 감수성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민족 민주운동의 각부분 운동과 연결해서 그 조직적 배포함을 통한 대중들과 접촉방법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 문화전통과 민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과제, 파소적 대안적인 자본주의의 상업주의 문화와 맞서기 위한 그들 문화 본질, 양태, 해악의 연구분석, 대중을 만화운동에 끌어들이고 대중자신의 민화운동을 조직화해나가는 것들 민중문화운동의 과제는 참으로 많다.

문화기획

의외의 절름발이 대중문화에 대중의 감수성은 반민중적, 허무주의적 냉소에 빠져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중문화는 많은 문제와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의외적 제약의 극복과 내적역량의 고지 및 강화의 문제일 것이다.

민중문화운동의 관점에서 그리고 대중의 민중의 관점에서 민중문화는 대중문화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사회적 파급성과 문화적 선전성으로 지평 넓혀 리얼리즘예술의 전형성창조와 조형어법등 연구돼야

화제의 책

유언권선언 대학신문 문화부 기자 연합에 의해 엮여지나왔다.

자대문연 시문집

다섯 평가하고 대학시에 대해서도 『잘 정리된 명작의 의식을 보여 주진 못하지만 그 고뇌는 응집도가 높고 감성은 순결한 쪽 발랄을 지녔다』라고 말한다.

저산맥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80년대를 3단계로 구분하여 40년대의 민중문화의 범모양상을 보여 주려 하며 대안적인 가장 첨예하고 전위적인 의식의 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들의 꿈

「남편 젊은이」가 「젊은복 녀시인에게」보내 시어인원이 갖는 독특한 문체적 감수성과 화려한 필치로 생생한 체험을 전달하고 있다.

무입승차

▲드디어 승객이 「왕」이 된 듯 싶다. 현대 마일이 편치 않은 듯하니 어인 일인가. 「無無승차」로 표지에 「왕」이 된 승객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거동기의 사회·정치상황을 대학인의 응집된 고뇌와 높은 감성으로 표현

이 시대에 쓰여졌던 시들중에 주목을 받는것은 70년대 우리시를 대표하는 김지하의 「거동기」(83년 대학신문), 정희아의 「거동기」(87년 대학신문)를 일컫는다.

거동기의 사회·정치상황을 대학인의 응집된 고뇌와 높은 감성으로 표현

이 시대에 쓰여졌던 시들중에 주목을 받는것은 70년대 우리시를 대표하는 김지하의 「거동기」(83년 대학신문), 정희아의 「거동기」(87년 대학신문)를 일컫는다.

거인의 몰락(上·下)

1938년을 전후하여 불세출의 명인 후 스탈린이 이룬 적공파가 정권을 찬탈할때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거인의 몰락」은 당시 민중들의 생활상과 투쟁의 모락을 그려나

우리들에게 공화국

아비는 대학입학식날 소주를 따라주며 웃었다 국물의 거친 노가다 인생 이제 더 나아질 것도 없는 오십 줄 밀바닥 삶이 서러워 어머니가 하던 대학강당이 벅차 가슴으로 울었다.

새책 안내

Advertisement for books including 'The Fall of the Giant' and 'Our Dream'.

Large advertisement for Anam Technics audio equipment, featuring the 'Holiday 470R' system and various speakers.